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성가소비녀회 마크는 예수-마리아-요셉을 상징한다.
첫째 기둥 J는 예수(JESUS), 가운데 M은 성모 마리아(MARIA)
둘째 기둥 J는 요셉(JOSEPH)을 형상화한 것이며, 원은 수도 공동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종들로서 구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신
예수-마리아-요셉을 본받는 소비녀(小婢女, 작은 여종)들의 삶을 의미한다.

강하게
늘어나는
강성을
살아가는
소비녀

강하게
늘어나는
강성을
살아가는
소비녀

2020년은 제17차 수도회 총회를 위해
소비녀들이 마음을 모으는 한 해입니다.

35호
2019-2020



“위로하야라, 위로하야라, 나의 백성을.” (이사 40, 1)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 주리라.” (예레 3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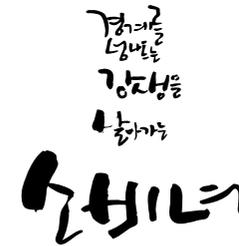
수도회 총회 전 관구 총회 : 2020년 8월 20일(목) ~ 24일(월)

수도회 총회 : 2020년 12월 10일(목) ~ 15일(화)

수도회 총회 후 관구 총회 : 2021년 1월 7일(목) ~ 11일(월) 의정부관구

2021년 1월 8일(금) ~ 12일(화) 인천관구

제17차 수도회 총회가 신앙 차원의 총회, 파스카적 건너감의 총회가 되고 또한 ‘함께 걷는 여정-공동합의성’ 안에서의 치유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께 여지(餘地, 남겨진 땅)를 내어 드리고, 지구를 위해서도 남겨진 땅을 지키는 소비녀들로 존재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표지

경계를 넘나드는 혼연함과 자유로움이 배어있는 강생은 타자를 향해 열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글자들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각자의 소리로 일해지듯이,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열려있다면,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그어놓은 선(線)을 넘어 더 큰 선(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손글씨 · 조진선 예수의 소피아 소비녀

나와 우리 사이

- 006 삶의 경계에서_ 백승주 님파 소비녀
- 011 하느님이 계획하신 개성공단과의 인연_ 전주정 분도 소비녀
- 016 어떤 안식년_ 강혜순 이윤일요한 소비녀

경계 알아차리기

- 021 나의 가난함, 그 너머의 자유로움_ 안소현 에스텔 소비녀
- 경계에 감히있지 않도록...
- 029 “변방으로 나가라. 억울하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라.”_ 한경자 마르티나 소비녀
- 031 날아라 강생의 씨앗_ 박해원 루디빈 소비녀 엮음

The story를 향하여

- 036 성령의 거미줄_ 박상훈 알렉산델 신부 · 예수회
- 044 ‘노마드’의 길을 찾아서_ 강신숙 디모테오 소비녀
- 경계에 가닿기 위한 몸부림
- 051 수도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옹의 공동체 Guille_ Marie Annic MANCHON · PSA
- 058 언어, 종교, 국적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멜트의 공동체_ 손은경 테레사 수녀 · FMM
- 065 탈핵 비움 실천 운동_ 청명 장미영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
- 070 오아시스를 떠나 세상으로 동행하신 성모님_ 최경희 비아 자매 · JMJ

다나리

- 076 도장리 내림의 집_ 박해원 루디빈 소비녀 엮음
- 081 안산 선부동 공동체_ 함께 함의 사랑_ 손성현 다니엘라 소비녀
- 하얗고 완벽하고 깨끗한...
- 091 배론 생태 공동체 ‘닭’_ 생태적 공동체 삶을 향하여 : 자본주의 vs 생태_ 권용희 빈첸시오 소비녀
- 098 활짝_ 주님의 푸른 들판에서 생명력이 활짝 튀어지길 기도하며_ 강선주 예녹 소비녀
- 105 동두천 베타니아_ 오늘, 난민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_ 임향미 안토니오 소비녀
- 109 개별동반 피정 및 일상 영신수련
- 110 꽃숨 청년기도 모임
- 111 소비녀 떼제기도

하느님의 큰 그림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소비녀들

나와

우리

사

이

“예언자들 모두가,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 『강론집 나해』 146쪽 -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나’이면서,

동시에 파견 받은 ‘우리’입니다.

여기,

‘나’와 ‘우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my story & our story⁺⁾¹

+ ‘my story, our story, the story’는 리처드 로어 신부님의 책 『숨겨진 지혜들 : 영성으로서의 성경』 39쪽 우주적 알(cosmic egg)의 개념을 빌려온 것입니다.



삶의 경계에서

백승주 님과 소비녀

2018년 9월 10일. 신경과 검사 결과 나오던 날,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 치료될 수 있나요?”

‘난치병’이란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풀 한 포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공허한 질문을 던졌다.
“이 병은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곤두박질치며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새의 깃털을 날리듯 가볍게 던져진 의사의 선고, 표정이 마치 석고상 같다.
그 선고는 내 삶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였는데 말이다.
아무런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대기 의자에 멍하니 앉았다.
기운이 없다. 왜 이런 특이한 질병에 걸리는 걸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이게 저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방법입니까?’ 애매한 항변을 한다.
3년 전 내 곁을 떠나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날까?
이 나이에 아직도 어린애같이 투정을 쏟아놓을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나….

지금까지 자신 있게 누비고 다니던 익숙한 길들이 사라져서 방향을 못 찾겠다.
그동안 당당하게 갈 곳이 있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
소임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것이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삶의 경계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더니 놀랍고 부끄럽다.

젊음과 노화, 삶과 죽음은 같은 평행선 위에 함께 있었다.
아니, 천국과 지옥, 선함과 악함도 늘 함께 가고 있었다.
자주 서로의 위치를 바꾸면서….

내 활력의 무대이던 소임을 놓고 관구에 와서 쉬면서, 20여 년 전
장상들의 뜻으로 선배 수녀님들을 인터뷰했던 녹음 파일을 문장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파일들이 이토록 오래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제 소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게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유업인 양 반기며 나를 찾아왔다.

뜻밖에 무거운 책무감이 느껴진다. 이 자료는 소비녀회의 초창기 이후
중간 역사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녹취록들을 문서화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수도회를
그 초기부터 '소비녀'라는 정체성을 각인시키고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극한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 광야를 통과시켜 키워내신 '깊은 섭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놀랐다.
우리 수도회 제2기라고 볼 수 있는 관구가 설립되기 전 단계까지
선배 수녀님들 마흔여덟 분의 수도 여정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하나 문자로 풀어내는 이 작업은 컴퓨터 키보드 입력이 느린 내게
결코 녹록한 작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수녀님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끌리는
갖가지 재미있는 상황들과 가톨릭교회 사제들을 통해 소비녀회로 인도되는 과정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지와 굶주림 속에서도 고지식하고 순수하게 극복해내며
소비녀로서 응답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느님께 사로잡힌 한 개인
수도자의 자서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여건들 속에서도 중단 없이 확장되어가는 우리 회의 성장 과정이었다.
또한, 소비녀들이 소임 터에서 겪어내는 여러 상황과 난관들을 통해 비춰지는
그 시대 교회 모습과 사회 상황들도 엿볼 수 있었다.

세상의 변두리,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외롭게 버려진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소비녀들이기에, 그들의 삶인 가난과 추위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내며 '하느님 뜻 살아내기'의 모습들은 경계점에 있는 이들과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섭리하신 살아있는 역사이다.
현시대의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저런 상황과 과정들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체험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선택되어 광야의 굶주림과
시련을 거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듯, 하느님께서 소비녀회에
친히 개입하시는 깊은 구원 경륜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
본인들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개개인의 여정은 소비녀회의 전체
역사 안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통합되고 있다. 개인적 어떤 오류나 미숙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작품의 음영을 통해 입체감이 살아나듯, 모두 다 수용하여
'소비녀회(小婢女會)'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잠시나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생각들, 설립 동기에 대한 편견을 이 작업을 통해
불식(拂拭) 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수도회에 이루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 설립자를 통해서, 소비녀들의 다양한
소명 수행의 길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녀회 역사를 만들어 오신 수녀님들은 현재 우리 곁에 증인으로
살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지금은 그토록 갈망하던 하늘나라의 영원한
표석이 되셨다. 비록 함께한 공동생활에서 많은 갈등과 아픔을 주고받았다 해도
이분들이 남기신 삶의 자취는 후배들의 통찰을 통해 우리 회의 중간 역사에 대한
신학화 작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요즘은 노령으로 쇠약해지신 수녀님들이지만 평화로운 미소로 후배들을 반기는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편, 그분들의 모습이 현재 불품없이



찌그러지고, 못 알아들어 판소리하고, 고집스러움으로 남아있다 하여도,
 소비녀회가 오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오신
 분들이기에 그 삶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마무리를 생각한다.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삶의 경계를 넘어가면 그것이 자신의 영원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주님의 은총과 자비밖에 바랄 수 없는 나...

오래전,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인지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구분이 안 되던 때가 있었다.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던 때, 지금 삶의 경계에 서서 그때의 내가 그립다.

경계란?

하느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사라진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서로를 분리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경계가 아닐까?

나와 너, 서로 다른 언어와 사고의 차이, 소통의 한계, 우리 삶 속에
 깊게 각인된 분리 의식이 세상 안에서 경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내게 불편한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구에겐 고맙고 편한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이 평행선 위에 함께
 공존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창조물들이 그 모든 장애물을 잘 통과하여 당신께 오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는 그 모든 장애, 경계가 사라지는 곳이다.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믿는다.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자비는

내 삶 안에 그어진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위로하실 것 같다.

“그래, 수고했다. 살아내느라 애썼다!”

하느님이 계획하신 개성공단과의 인연

전주정 분도 소비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이사 55, 8-9)



관구 공동체에 흐르는 소비녀들의 기도의 기운을 느끼면서, 하느님과 하나 되었던 행복한 체험의 시간들을 소중한 선물로 가슴에 지닐 수 있었다. 이렇게 공동체의 사랑을 먹으며 자라난 작은 여종의 2018년 한 해는 생명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한 해였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 수도자이며 간호사인 내가 더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다그침을 받는 시기이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느꼈던 설렘과 두려움, 감사와 사랑을 두서없지만 지금부터 기록해보려 한다.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설렘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다양한 감정을 안고 2018년 9월 11일 북으로의 첫 발걸음을 디뎠다. 수도복을 입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남측에서 공단으로 파견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고, 북측 분들에게는 존재의 사도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지만 큰 꿈을 꾸며 부천성모병원에서 개성공단까지의 출퇴근 파견근무가 시작되었다. 일주일씩 출퇴근 방식으로 매일 남북을 오가며 북측 분들과 점차 웃기도 하고 간단한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장시간의 출퇴근길에 지치기도 했다.

9월 15일 남북연락(련락) 사무소가 개소되던 그 역사적인 날, 그곳에서 남북의 모든 상황을 봉헌하면서 성모님께 한반도의 평화를 청하는 묵주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 날 북측 분들과 캔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은 지금도 나의 얼굴에 미소를 불러일으킨다. “선생!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한 답변과 심정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면서 “2016년 2월에 멈춰 있던 시간, 공간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것 같아 흥분과 설렘과 벅참과 행복함이 있다.”는 나의 마음을 전하였다. “선생님은 어떤 심정이세요?”라는 나의 질문에 수줍게 웃으며 “저도 기쁩니다.”라며 미소 짓던 북측 분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

10월 어느 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개성공단에 가을꽃을 제공하여 남과 북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환경 조성을 힘쓰던 순간에도 함께 하였다. 일주간의 업무를 마치고 북측에서 남측으로 출경하는 날 “꼭 다시 오세요.”라는

초대 소리가 지금도 가슴에서 울리고 있다.

그 후 다시 일상에 돌아와 있는데 추운 엄동설한 12월에 온전하게 체류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20여 년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한 달이나 미사를 하지 못하고, 더구나 성경 및 기도서의 반입이 금지되었기에 수도자의 의무기도인 성무일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상도 되지 않았다. 파견근무 요청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소리처럼 들려왔고 예언자의 응답을 나 역시 하게 되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 6, 8) 그리하여 북측 땅에서 성가소비녀회 간호수녀 두 명의 의료실 소임이 시작되었다. 힘들 것이 예상되었지만,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니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 달간의 의료 파견근무는 24시간 콜 대기 상태이어야 했기에 출퇴근 때보다 더 많은 긴장 속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환자가 방문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매 순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 파견된 모든 이들과, 우리나라를 살피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 존재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간호 수녀로서 병원 사도직을 하는 동안 다양한 부서를 거쳤고 특히 상처





전담간호사의 경험은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였기에,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주말에 북측분이 내원하셨는데, 깊은 열상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한 재료가 오히려 피사 등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 상처가 여간 심각하지 않았다. 상처가 깊고, 감염 증상도 심해서 개성 시내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연락 사무소 의료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였다. 일주일 동안 매일 사랑과 정성,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간호하였고, 일주일 후 평양으로 돌아갈 때 상처는 많이 호전되었다. 돌아가서 혼자서라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챙겨주고, 두 주 후에 다시 돌아오면 내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북측 관계자로부터 ‘다 나아서 맨손으로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 치유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숙소인 송악 프라자 주위를 갈바람 맞으며 두 수녀가 소리 내어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무일도 대신 성가를 소리 내어 부르며 걸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대축일을 수도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었기에, 두 수녀가 예수님이 되기로 마음먹고 가족들과 떨어져 당직 번으로 남게 된 남측 분들과 성탄 파티를 열어 기쁨을 나누었다. 참석자 모두의 사랑 나눔으로 마련된 것들이었기에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가량을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가 되었다는 복음의 기적을 보는 듯했다. 전 팀이 사용하던 클레이로 아기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님을 만들어 구유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북측 땅에서 첫 성탄을 이렇게 소박하고 기쁘게 기념하게 된 것이다. 성탄을 지내고 12월 26일에는 개성 판문역에서 역사적인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있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행사에 의료진으로 서울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두 명과 우리도 지원팀으로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한다.

그곳에서 한 달의 시간은 역사의 현장에서 기쁨과 설렘을 맛볼 수 있었던 동시에 갑작스럽게 동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치열했던 시간이었다. 또한 이 기간은 나의 삶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침묵 속에서 사색하고 인내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하느님과 그 계획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수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다시금 그 꿈같았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여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 모아 고백한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 11, 25-26)



어떤 안식년

강혜순 이윤일요한 소비녀



‘토종이 자란다.’를 통해 맺은 인연

나는 평소에 농촌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생태계의 보존으로 흙을 살리고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토종 씨앗과 농토가 사라지는 농촌 현실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또 농민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며 농민들과 함께 길을 걷고자 강원도 양양으로 내려왔다.

내가 내려와 있는 곳은 양양과 강릉의 경계선 지점에 있는 곳이다. 바위가 갓을 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갓바위(입암리)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홍수로 인해 마을이 물에 잠긴 후 하천이 잘 정비되고 논이 있던 곳에 집들이 들어섰다고 한다. 그러면서 논들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농가들이 띄엄띄엄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토종이 자란다.’라는 씨앗 나눔에서 만난 A씨를

통해서다. A씨와 귀농을 원하는 두 모녀, 그리고 내가 공감한 것은 흙을 살리며 토종 텃밭과 꾸러미 - 소비자와의 직거래 - 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농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루고,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섬의 자리가 되는 곳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 네 사람은 농사를 통해 농사 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자서 하는 노동의 어려움을 서로 힘을 모아 생태적 삶으로 살아보고자 했다. 또 농촌마을 지키고 토종 씨앗을 나누어 연대하며, 토종 씨앗의 소중함을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뜻을 모았다.

안전한 먹거리와 토종 씨앗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다. 농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경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경작한 농산물에 대해 제 가격을 받고, 소비자도 농부의 손에서 귀하게 키운 먹거리를 제 가격을 주고 사 먹는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중요한 먹거리를 값싸게 먹으려는 기존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농부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을 소비해줌으로써 소비자도 함께 농사짓는데 동참해야 한다. 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부가 자연의 이치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존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행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셨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선조들이 지켜온 씨앗으로 농사를 짓노라면 마음이 푹푹해진다. 그 풍요로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씨앗에는 선조들의 영혼이 숨 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토종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느님은 나의 작은 수고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토종 씨앗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식물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토종 씨앗은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토종 씨앗으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관행농이 보장하는 고수확, 고소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곳에 존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은 단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과 선조들의 역사가 담긴 토종 씨앗과 전통 농법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멀리서 농촌을 바라보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감탄사를 보내게 되지만, 막상 이곳에 내려와 살아보니 그것은 농민들의 치열한 삶의 결과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수고와 성실함의 결실은 관행농법으로 인해 땅이 농약과 화학비료에 황폐해져 가고,



농부들 또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만나는 농민들은 이제 살만해졌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이젠 병고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웃으며 이야기할 때 마음이 먹먹해진다. 그들의 마음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노라면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저 '도와드릴게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각자가 생태계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가던 길 멈추고 잠시 우리의 뒤를 돌아다보아야 하지 않을까? 선하신 하느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속으로...

지금은 토종 텃밭에서 마을 텃밭으로 농사의 폭을 넓혔다. 일손이 없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이웃의 텃밭으로 놀러 가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점심도 얻어먹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 마을에 살고 계신 스님은 무조건 당신 집으로 출근하라 하신다. 왜 수녀가 이렇게 살려고 하냐고 묻는다. 이 질문은 나 스스로에게 매번 묻는 질문이다. 여기서의 삶이 다르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 가운데 살며, 그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젠 주님께서 나의 응답을, 나의 실천적 행동을 기다리고 계신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손길을 알고 또 나를 존재케 하는 주위를, 피조물을 인식하며 살아야 함을 자꾸 재촉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깨우신다. 흔들어 깨우신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라고!
 주님께서 나를 깨우신다. 흔들어 깨우신다. 네 안에 내가 있다고!
 주님께서 나를 깨우신다. 흔들어 깨우신다. 당신의 피조물을 보라고!
 그리고 나의 응답을 기다리신다.
 나는 농부이고 싶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싶다.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싶다.

경계를 알아차리기,
경계를 넘나드는 준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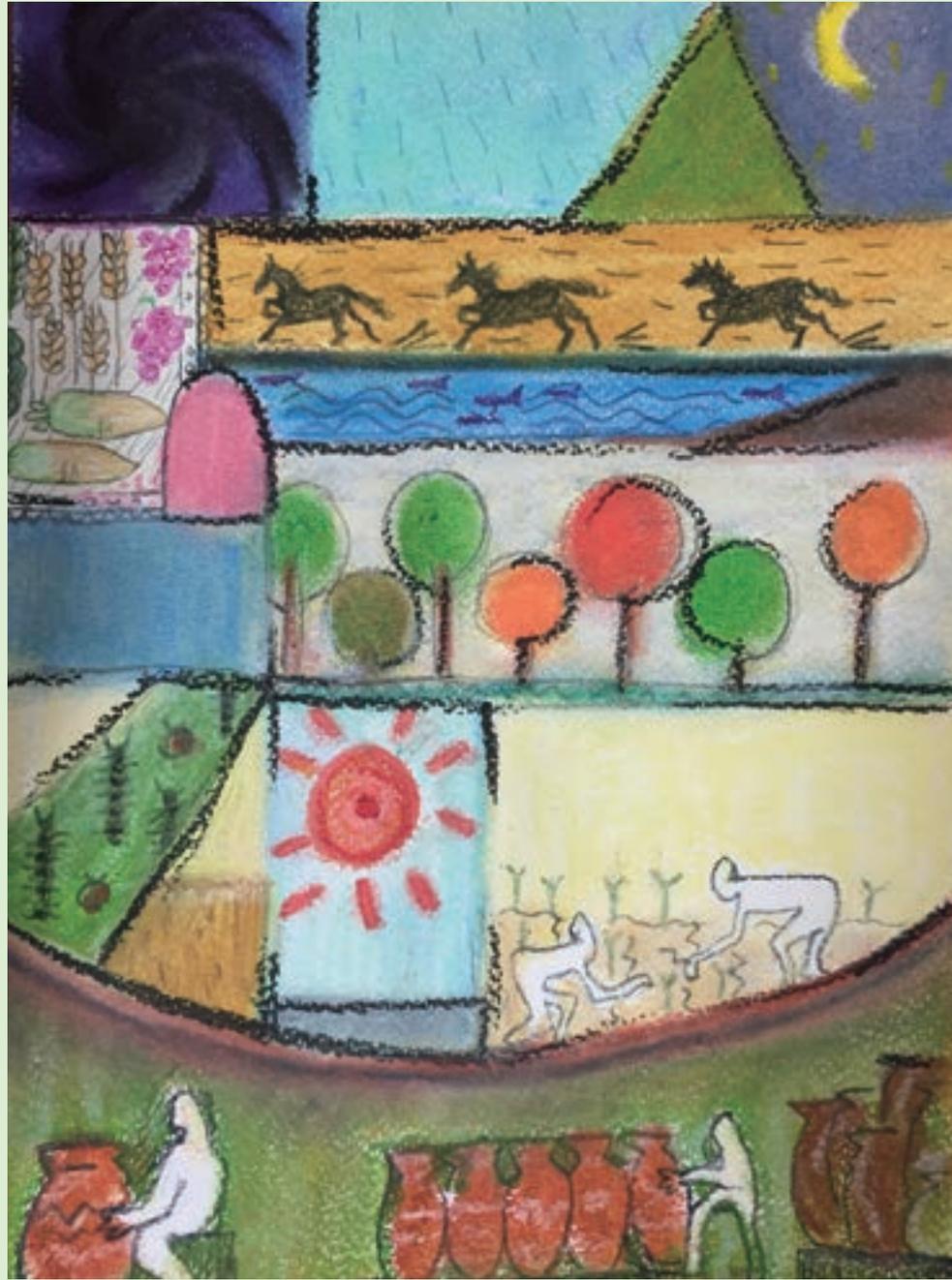


그림 · 안소현 에스텔 소비녀

아닐런지요……?



나의 가난함, 그 너머의 자유로움

안소현 에스텔 소비녀

종신예정 수련을 시작하는 올해 초 내 안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다. 예수님이 내 자신이 되어 내 안에 계시다면 나 자신을 잊어야 하는 자기 초월과 나 자신이 공존할 수 있나? 이 질문을 어떤 수녀님께 했을 때 이런 답이 왔다. 자신을 잊으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초월하려면 자기 자신을 ‘찾아야’한다고… 자기를 찾아야 초월할 수 있고, 초월은 다름 아닌 원래의 ‘나’를 만나 그냥 존재하는 ‘나’가 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체험이 끝난 지금,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 안에 존재하려고 할 때, 그들에 의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자유는 주님의 섬세한 섭리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왜 굳이 마다가스카르인가?

2016년 성가복지병원에서 소임 할 때 각국에서 선교중인 파리의방선교회
신부님들의 대표 회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그때 성가복지병원에 매일 미사를
오시던 파리의방선교회 소속 신부님 덕분에 그 신부님들이 복지병원에 방문
하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마다가스카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중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가신다는 말 한마디가 인상적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그려졌다. 김대건 신부님과 같은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어떤 신부님이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천리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는 그 열정, 그 신앙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것이 이 선교체험의 작은 씨앗이었다.

일단 연락처를 받아 자기양성피정 전에 연락을 드렸다. 그런데 아주 흔쾌히
오라고 하셨고 나는 자기양성피정에 들어갔다. 피정에 들어가서도 ‘과연
마다가스카르에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일단 가라고 하셨다. 가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양성피정을 하면서 내 안에 수많은 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고, 나는 이 모든 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나의 삶을 아우르는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싶다는 열망으로 ‘하느님의 사람! 자유로워지다.’라는 목
표를 세웠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존재를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존중해주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들에게 가는 것, 그것이 네 패러다임의 전복이고,
그들 패러다임의 전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피정을 마치고 나와서
관구장 수녀님과의 면담에서 입회 전 부르심처럼 꼭 마다가스카르에
가야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마다가스카르에 오면서 타인에게 신세를 져야하는 가난

신부님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본당에 갈 때까지, 성가정 성당에
가서도 마실 물, 빨래대 등 이것저것을 챙겨주심에 몸을 어디에 돌지 몰랐다.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신부님께 맡겨진 어린아이가 된 듯했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나?’라는 생각에 막막했으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가난도 받아들이자, 기쁘게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홀로 남겨짐에서 가난한 자로 함께 하는 자유로

드디어 만드리짜라에 있는 성가정 성당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보니
만드리짜라는 우리나라의 한적한 시골 모습과 비슷했다. 주변을 일주일 정도
익혔을 때, 신부님은 약 2주간 주임신부님과 함께 피정을 떠났다. 홀로
남겨졌다는 우울과 두려움에 빠져있기보다는 ‘무조건 함께한다.’라는 자세로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니, 내가 상당히 사교적이라는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초대에 응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설거지나 춤을 함께
춤으로써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1시간 이상 현지어나 영어로
소통하다보면 금방 지치기도 했지만, 함께하고 나면 에너지를 받았다.
문득 왜 그토록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돌아올 때 내가 머무르고 있는
성가정 성당 지붕이 보일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다. ‘집에 돌아왔다.’라는 느낌.
낮선 공간에서 나에게 친숙한 공간이 보일 때의 편안함인 것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유로워지다.

신부님이 피정이나 오지로 가서서 혼자 남겨질 때 나도 모르게 서운함이
올라왔다. ‘한국 신부님 한 명 믿고 왔는데 나를 두고 또 떠나다니...’ 그런 감정
때문에 간접적으로 통명스럽게 대하고 있었음을 어느 날 깨달았다. 다른 때
같으면 부정하거나 인정해도 표현하지 못했을 텐데 신부님도 괜히 내 태도로

오해하실 것 같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창피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나니 왠지 흥분해지고 신부님을 대할 때도 편해짐을 느꼈다.

상처받아도, 우울에 빠져도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자유, 선교사니까!

그곳에서 나의 소임은 3~4살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섯 반으로 구성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4번 하루에 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도 처음이고, 한국어도 아닌 영어를 가르쳐야 했기에 그동안 진땀을 흘렸다. 그래도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선생님들 표정도 밝아서 할만했지만, 2주차 수업을 시작하자 유치원 아이들은 조금씩 잘라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프랑스어도 모르고 말라가시어도 모르니, 선생님과 소통이 어려워 서로가 답답해하였고,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은 산만해지기 시작하였다. 소통이 안 되는 데에서 오는 작은 오해들이 쌓이자 선생님들 표정이 굳어지고, 나는 점점 긴장을 하고 눈치를 보게 되었다. 한 번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상처를 받고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수요일에 쉬면서 마음을 돌려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말이 통하지 않기에 오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목요일 아침에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다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자 선생님도 밝게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컴플레인을 했던 유치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도입하여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과 너무 소통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갈 말이 있다고 하였다. 밝은 얼굴로 다가오는 선생님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내 수업에 대해 해줄 조언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더니, 없다면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말해줘서 기뻐다.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우울해지거나 몸이 안 좋거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되도록 바로 사과를 했다. 표정이 굳으면 바로 피곤하냐는 피드백이 들어오고 나 역시 그들의 표정이 굳어있으면 신경이



쓰이는 것을 체험하면서, 밝게 웃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이나 여기나 다를 것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너무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선교사라는 책임감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자유,
성가소비녀회의 한 회원으로 바라보다.

타마타부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건소와 한인 신부님을 모실 계획을 하고 있는 대건안드레아 성당이였다. 이미 사전에 성가복지병원에 대해 알고 계셨던 추기경님이 한국 수녀님이 오면 좋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계셔서 나보고 오라고 하셨다. 이때부터 나는 복지병원 재편과 연결해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작은 보건소를 보면서 복지병원 재편 설문지에서 미래방향 중 해외에 소규모 진료소를 지어 진출한다는 대안이 생각났다. 현재 복지병원은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서 수요가 적고, 차상위 계층 역시 찾는 경우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복지병원이 마다가스카르의 이 작은 보건소와 협약을 맺어 이곳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가라고 했던 설립자 성 신부님 정신과도 맞고 후원자들에게도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것에 대해 신부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신부님은 마다가스카르에 성소자가 많이 있다며 성소자들을 우리나라에 데려가 양성시켜서 우리 수도회의 한 회원으로 의료기술을 배워 이곳에 다시 온다면 성가소비녀회 정신으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후 마다가스카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단순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나라에 우리 수도회가 진출할만한가?’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기후나 환경, 음식이 적응할 만한지, 성가복지병원의 취지와 이 보건소 운영이 적합한지, 성소자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라는 우물을 벗어나 성가소비녀회의 한 회원으로, 선교사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나의 주님이 되어 나를 키워주었다.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내가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공동체에 처음 방문한 수녀를 지극정성으로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하며 설명해 주었다. 이들이 나를 초대해주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었고 어색했지만 춤을 출 수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의 집에도 방문할 수 있었다. 물론 그때마다 언어가 되지 않아 답답하고 어색하고 힘든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초대에 응하는 나를 보았다. 수줍어하는 나를, 낮가리는 나를, 사람을 어려워하는 나를, 표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환대와 초대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나의 계획을 넘어서게 하고 남의 시선을 넘어서게 하였다.

한곳에 적응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부르심이 이어진다. 그럼 또 그곳에서 가난해지지만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분들을 통해 채워주신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인연이었고 모든 인연이 신기하고 귀한 인연이었으며,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었다. 가난한 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돌봄을 받았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고, 하느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이상을 완수하는 것이기에 나는 진정으로 선교사임을 느낀다.”
- 『성재덕 신부 제2집』 83쪽 -

‘나’와 ‘우리’ 안에 간혀있을 때,
 파견된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돌보는데 몰두할거나,
 경계를 넘어서겠다고 걱정할 때,
 어쩌면 스스로가 그어놓은 선 안에 간혀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테리자 10수비 | 21년 1월 · 문그

“변방으로 나가라. 억울하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라.”

한경자 마르티나 소비녀



2015년 1월, 관구 성가정 모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복음의 기쁨>에 대한 성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나에게 “변방으로 나가라. 억울하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라.”라는 말씀으로 들렸다. 당시 나는 청풍 공소에서 소임을 하고 있었는데, 춘천 죽림동 전교 수녀로 활동할 때 알게 된 실비아 자매의 억울한 사정을 듣게 되었다.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더플레이스’라는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현시가의 1/10 정도로 공탁 받고,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집이 포크레인으로 강제 철거되고 수용되어, 억울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 잠도 못 자는 분이였다.

그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곳이 없어서 한이 맺힌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도 함께 연대해 줄 수 있다면 그에게 위안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 참가한 집회는 홍천 꽃뿔 공원에서 있었는데 15명 남짓 모여 있었다. 모인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회에 참석해보니 내가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수녀원에 돌아와서 책임자 수녀님, 관구장 수녀님과 의논하여 한 달에 한 번 홍천으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해 2월과 3월에 함께 했다. 4월 초에는 실비아 자매가 골프장을 반대하는 필리핀 분들과 연대하여 군자리, 동막리, 혈동리, 세 곳을 다니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불일이 있어서 상경하고 있던 차에 자매의 연락을 받고 부활절을 준비해 온 피곤함과 일정을 이유로 집회 참석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연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니 정신이 번쩍 들어 발걸음을 춘천으로 되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가던 걸음을 되돌려 원주에 내려 춘천행 버스를 타러 가는데 마음이 두근거리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같은 해 4월에 『재속의 불씨』로 연피정을 하면서, 나의 노년기 영성은 현장 연대 사도직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 피정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편지글을 작성해서 피정 끝나고 관구장님, 평의원, 책임자 수녀님께 메일을 보내고 생각날 때마다 화살기도를 바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9월 말쯤 평의원에게서 송파 분원으로 가라는 전화가 왔다. 뭘 듯이 기뻐다. 기도와 숙고를 통해 수도회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11월부터 현장 연대 사도직이 시작되었다.

송파 분원에 거주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역울함과 한을 가슴에 품고 울고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그들과 함께 앉아 있고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러다가 제주도 강정에서 평화 포럼 때 만난 예수회 박문수 신부님이 동자동 쪽방촌에 협동조합 이사장 전화번호를 주면서, 수녀가 가면 그곳에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곳이어서 망설여졌지만 성모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한 달 후 10월 첫 수요일에 방문했다. 식도락에서 천원 주고 점심을 먹고, 사랑방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K 형제님이 오셔서 4개월 교리를 받다가 그만두었다고 하며 대화가 시작됐다. 아침마다 카톡으로 짧은 성구를 보내드려도 괜찮으신지 물었더니 좋다고 하고, 옆에 있던 분들도 원해서 그 자리에서 다섯 명의 전화번호를 받고 친교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동자동 연대의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행복했다. 수요일마다 식도락에서 점심을 먹고 사랑방에 앉아서 이야기하며, 한 달 가량 지났는데 후암동 인보의 집 이 베네딕토 수녀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인연을 통해 현장 연대 사도직을 벌써 4년째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사도요한 형제를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그 형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면서 쪽방촌 형제들과 일대일 만남을 더 집중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다.

돌아보면 2015년 실비아 자매를 통해 현장 연대 사도직을 미리 준비 시키셨던 것 같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현장 연대 사도직과 고통받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사도직을 하면서 설립자 신부님의 말씀이 딱 맞다는 생각을 한다. 마음이 찢긴 이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이웃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심을 그리고 나에게도 자유와 기쁨을 주시며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매번 느낀다. 그래서 늘 희망이 있고 기쁘게 하루하루 순간을 살고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수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날아라 강생의 씨앗! 퍼져라 멀리멀리~ ♪

인천 관구 수원지구
Open Day에 참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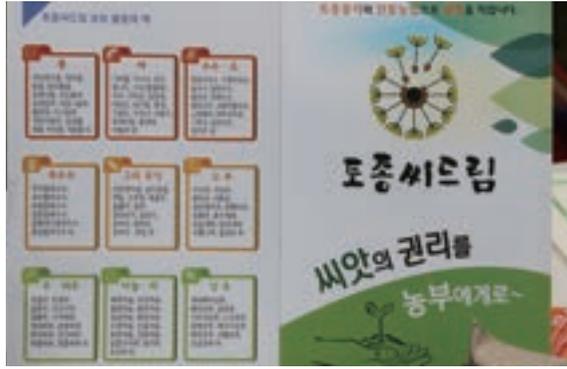


2019년 5월 4일 용문 나자렛집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인천관구 연수는 '지역과의 소통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지구별로 창의성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지역 수녀님들은 자연을 살리고 토종 씨앗의 존재를 보존하려 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오픈 연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토종 씨앗을 나누고,
토종 먹거리를 나누고,
토종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는 지구 안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느님 창조의 경이로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주교 농부학교, 토종학교, 토종씨드림, 양평지역 씨앗모임, 적정기술공방, 비전화공방, 성남 자유 발도로프학교, 사랑의 씨튼 수녀회,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수녀님 등 지역사회 안에서 생명의 수호자로 함께 연대하는 150여 명이 참여하여 풍성한 나눔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지역과의 소통과 공존

경계를 넘나드는 열린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The Story를 향하여

The Story는 항상 참인 것, '나'의 작음과 '우리'라는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보다 작은 수준들의 모든 것들을 ‘the Story’에 연결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은 초월적인 의미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 『성경의 숨겨진 지혜들 : 영성으로서의 성경』 43쪽 -

성령의 거미줄 : 강생과 구원의 정치

박상훈 알렉산더 신부 · 예수회

예수의 죽음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예수 운동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일신론의 이념에 충실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언뜻 모순으로 보이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 한 분이신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속하는 성격과 활동을 예수도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약성경의 그리스도론은 세례, 성찬례, 찬양하고 선포하는 찬가 등 무엇보다 전례의 실행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그리고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에 들어맞는 이미지, 언어, 전승을 사용해 이 경험을 재구성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는 용어도 다양해졌다. : 사람의 아들, 예언자, 메시아, 둘째 아담, 하느님의 아들, 말씀, 지혜, 그리고 주님. 이 모든 용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다.”라는 강력한 구원의 경험이 녹아 들어 있다. 이 이념과 선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정치, 즉 구원의 정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수가 폭력과 고통과 죽음을 결정적으로 뒤엎어 버릴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서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든 이 주장은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유대인들이나 로마 제국의 켈트 신봉자들은 분노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원수가 되었다. (갈라 1, 13-14)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

추측과는 달리,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하느님’으로 곧바로 동치 시키지 않는다. 마르코 복음서에는 십자가 처형 이후까지도 누구도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한 복음서에는 ‘말씀이 하느님’이시고 ‘나와 하느님은 하나이다.’는 증언이

나오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신성에서 하나이고, 아들이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으며, 예수가 신성에서 하느님과 동일한 ‘하느님의 육화’라는 강한 의미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4세기의 아리우스는 요한 복음서를 해설하면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말씀의 육화이고 신적인 분이지만, 창조주 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하느님의 유일성과 예수의 특별한 지위를 함께 지지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성경은 유대교 일신론을 두 형식으로 나누었다. 성령은 하느님이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지 않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배경을 말하겠지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동일성은 세 위격을 단적으로 같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만큼, 단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동일성과 차이의 역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나마 그 신비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성경의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지위와 역할을 어느 한 가지의 정형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여러 정형들이 서로에게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예를 니케아와 칼케돈 공의회에서 볼 수 있다. 거기서 제안되었던 교의들은 신앙을 성경과 전례적 표현에 따라 정형화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형성하는 사회적 조건들과 도전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도 예수의 신성을 입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전통적으로 예수는 하느님의 육화이고 그래서 신적이며, 신약성경에서 예수는 그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이렇다. 아프리카 신학에서, 예수는 사제이며 부족장이다. 여성신학에서, 예수는 생명의 부양자이며 여성들의 친구이다. 해방신학에서, 예수는 거부된 자들의 옹호자이다. 탈식민지 아시아신학에서, 예수는 ‘정’(情; love)의 구현자이다. 이런 진술들이 전통적인 신학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급진적이니 정통이 아니니 하는 비판은 부질없다. 성서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느님의 현존, 구원, 예수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있는 장소와 맥락에 따라 의미를 찾고 변경하고 도전하며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물음과 대답은 그래서 정치적이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오직 하나의 결정적인 교의적 합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랬던 적도 없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 예수의 신성,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반복해서 제기되기 마련이다. 전통과 교의가 이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계상과 현실의 맥락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그리스도론 : 말씀과 성령

구원의 현실성, 하느님 경험, 성경 증언의 우위성, 교회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사려 깊게 가늠해 보려는 시도에는,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의 그리스도론과 ‘성령’의 그리스도론이다. 앞의 것을 예전에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 불렀는데, 육화한 말씀(Word incarnate)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참으로 통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한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신성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강생의 의미를 풀었다. 구원의 정치에서 ‘말씀’ 모델이 지니는 장점은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에서 오는 강생의 효과, 즉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와 관상,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의 실행을 통해 고통과 소외를 넘어 갈 수 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참으로 인간과 일치된 사건인 강생에 따라 사는 삶이란, 인간의 모든 차원, 즉 개인, 공동체, 교회, 사회의 다양한 관계를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재구성하고 변형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공관 복음서와 몇 가지 바오로 서간에 뿌리를 둔 ‘성령 그리스도론’은 ‘말씀’ 모델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인간다움과 역사성에 초점을 두고, 교회 공동체의 하느님 경험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하느님 나라를 끌어가는 성령의 힘을 중심에 놓는다. ‘성령’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실성을 일차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삶과 활동에서 찾기 때문에, 사회적 고통과 변화에 대해서도 훨씬 더 민감하다. ‘성령’ 모델은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선행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막강한 글로벌 자본주의와 약탈 경제로 삶과 환경이 착취당하는 현대 세계에서 훨씬 더 큰 함의를 지닌다.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다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들, 기존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대항문화와 대조 공동체에 영성과 윤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복음서의 예수와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의 급진적 사회 전망을 연결시키며, 역사와 창조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포괄성과 현실성에 초점을 두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를 한결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즉, 교회는 이 세계와 창조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동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령의 그리스도론’이 하느님의 아들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전통적인 믿음을 약화시키고, 정통 그리스도교의 척도가 되는 교의를 포기한다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인간다움을 무시하고 모호한 교의의 정형화를 통해 역사를 추상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말씀 그리스도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강생을 통해 인간이 신적인 삶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이 실제 역사적인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희망을 고양시켜 왔다. 그러니 두 방향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한다. 하느님 경험을 각각 ‘말씀’과 ‘성령’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신앙 윤리와 정치에서는 거의 충돌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교의를 선포하는 제도적 교회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따르지 않고, 마치 스스로가 미리 부여된 불변의 힘을 지닌 것처럼 이해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자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예수는 하느님이시다.”, 어떻게 그런가?

예수회 신학자 로저 헤이트는 『예수 : 하느님의 상징』(1999)에서 예수를 하느님의 성령과 연관시키는 성경 전통을 복원해 예수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해한 ‘성령 그리스도론’을 보다 세련되고 엄밀한 방식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05년 바티칸 교리성성은 이 저작이 ‘심대한 교의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저자에게 ‘침묵령’을 내려 출판과 강의를 금지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로저 헤이트는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에 큰 기여를 한 신학자인데, ‘이 시대의 정신, 그리고 성경과 전통의 풍부함 사이의 대화를 이끌며, 예수에 대한 새로운 표현들이 현대 세계에서 보다 뜻이 분명해지도록’ 신학의 과제를 수행했다.(엘리자베스 존슨) 물론 “현대의 문화에서 신앙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과 그 핵심 주장을 무신론자도 수용할 수 있는 진술로 환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존 카바디니)

그러면 정말로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우선, ‘상징’의 의미이다. “예수는 하느님이시다.”라는 진술은 한 방향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이 진술에는 역설과

역동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어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한다. 한 인간이 동시에 ‘참으로 하느님’이면서 ‘인간’이라는 주장은 일단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 자신에게만 특정한 어떤 특징들을 지닌 개별 인간이, 한 쪽으로는 영원하며 불멸하고 비공간적이며, 동시에 다른 쪽으로는 시간적이며 변화 가능하고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는 하느님이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예수는 인간이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 사태를 두고 여러 중첩되는 경로를 생각해야 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징’이다. ‘상징’을 어떤 사태, 혹은 사물을 단지 지시하는 것만으로 보면, 예수는 하느님이 아니라 단지 하느님을 지시하는 한 인물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 ‘예수가 하느님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상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성’이라는 단선적인 표현이 예수의 인간다움을 약화시켜, 오히려 예수의 ‘독특함’을 없애 버리는 위협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하느님이시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인간이라는 제약 조건을 지니고 역사 안에 현존하신다는 뜻에서 그렇다. 어떤 특정한 역사를 살아갔던 예수가 바로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르쳐 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역사적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항상 다르지만 권위를 지닌 성령의 도움으로, 초기 공동체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도 자신들의 과제를 수행해 갔다.

이 십년 전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 왜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었는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오래전 이미 서구 가톨릭 신앙인들의 자기 이해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신앙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인생의 과제이지, 전처럼 문화적 정체성이나 가족의 영향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특히 한국의 가톨릭 신앙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다. 로저 헤이트의 그리스도론은 대부분의 가톨릭 신앙인들이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정교한 신학의 문법으로 다시 재구성한 것이다. 대부분의 가톨릭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신앙 고백을 마음속 깊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 심대한 종교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가톨릭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걱정하지도 않는다.

일부 그리스도교 광신자들 말고는 아시아에서는 상식인 것이 서구에서는 여전히 문제이다.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은 이제 어떤 객관적인 척도에서나 심지어 철학적인 척도에서도 유지되기 어렵다. 이 우월성은 신앙의 단일성과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유가 없지는 않은 방어이지만, (그래서 공격이기도 하다.) 그 심층에는 서구 근대 사회의 내적 분열에 반응한, 특정한 역사적 요인들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은 순수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순수히 종교적인 사태’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느님의 현재성과 가지성(可知性)은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하다. 다양성은 단지 ‘상대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교의와 문화가 ‘다양성’을 신앙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면, 구원은 협소해지고 하느님의 자비는 초라해진다. 우리는 하느님의 관대함과 자비에 대한 확신을 지녀야 한다. ‘다양성’은 하느님의 신비와 창조가 주는 선물로서, 그 기쁨을 나누고 축하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성과 탈중심

‘다양성’이 유대교 전통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일부 유대교인들이 이단으로 비난한 유대교 신학자 조나던 색스는 무엇이든 보편화하려는 종교적 심성의 위협을 지적하며, 유대교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개별주의적 일신론’이라고 주장한다. “유대교는 말하자면, 밀도 끝도 없이 갑자기 돌출한 종교이다. 유대교는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을 포착했다… 바벨탑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창조한 다양성 대신에 사람이 만든 단일성을 주입하려 한 시도에 대해 하느님께서 거부하신 사건이다… 성경에서 보편주의는 윤리적 상상의 힘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단계에 불과하다… 유대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지만, 구원에 이르는 단 하나의 배타적인 길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여러 타자들 안에 자주 나타나신다. 성경의 일신론은 한 분 하느님이 계시니, 그분의 존재에 다가가는 하나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 반대이다. 하느님의 단일성은 창조의 다양성 안에서 발견된다는 뜻이다.” (『차이의 존엄』)

다른 유대교 학자 아비바 고트리브 조른버그는 『창세기 : 욕망의 시작』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다양성’이 지니는 뜻을 탁월하게 밝혀 낸다. 하느님이 하신 첫 번째 창조 활동이 ‘무엇과 무엇을 분리’하는 작업이었다. 하느님께서 말하자면,

‘탈중심화’의 활동을 하신 것이다.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며 ‘최초의 분리작업’인 것이다. 랍비 라쉬는 이 활동을 가리켜, ‘창조 첫날부터,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적 단일성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능성으로 이 세계를 급진적으로 변모’시킨 것으로 보았다. 창세기 작가들은 단순히 하느님의 단일성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참된 ‘성질’을 밝히려고 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빨아들이는 제국의 황제나 군주가 아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거나, 심지어 하느님 자신에게 대항하는 행위를 허용할 정도로, 창세기의 하느님은 독점 권력을 깨며 뒤흔드시는 분이다. 물론 이 뒤로 인간의 권력 남용의 결과가 파멸이거나 축복으로 나뉘는 긴 이야기가 이어진다.

구원의 정치: 성령

‘말씀과 성령의 그리스도론’은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 있으면서, 구원의 정치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두 모델이 길항하며 보완하지만, 요점은 이것이다.

‘말씀’과 ‘성령’의 접촉점은 예수라는 인물로 실제 강생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이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일치하는 사건은 신앙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실천에서 핵심이 된다. 그럼에도, 특별히 ‘성령’ 모델의 장점을 제시하는 것은 전세계 차원에서 불평등, 가난, 폭력, 환경파괴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서, 새로운 신앙 실천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긴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도 많다. 잘못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회심할 수 있고, 미덥지 않게 보이던 공동체 연대를 심화할 수 있다. 하나하나가 하느님 나라를 실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젠더 불평등의 현실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활동하실지 상상해보자. 하느님 성령의 선물은 공동체에 젠더 평등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한다. 성령 안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변화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새로 직조된 인격을 경험할 수 있다. 동시에 같은 성령께서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억압의 구조를 깨트릴 힘을 부여하신다. ‘성령’ 모델에 대한 기본적 은유가 바로 이 ‘힘’(empowerment)이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사랑과 역량이 젠더 평등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은 헛된 것이 아니다.

예수가 생생하게 보여 주듯이,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느님 나라는 악에서 구원되는 상태를 뜻한다. 악이 총체적이고 깊은 만큼, 예수는 우리 각자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변혁을 통해 악을 궁극적으로 전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하느님 통치’는 악을 뒤집어엎는 하느님 능력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생동하는 정치적인 은유가 된다. 후에 초기 교회가 예수를 참으로 하느님이시며 참으로 인간이시라고 선포했을 때, 이 말이 확증하고자 했던 명백한 사실이 있다: 즉, 예수 안에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치유하는 현존과 능력으로 악과 고통이 극복된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를 실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에게 드러내는 분이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며,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이다. 예수를 따르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같이 되라는 힘을 부여받은 것이다. 성령의 활동은 신앙 공동체의 성화를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 시키며,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두드러지는 하나는 바로 ‘공공 영역의 성화’이다. 공공 권력은 당연하게도 독점이 아니라 참여이고, 배제가 아니라 수용이다. 바로 성령의 활동이 사회정의의 규범을 확장한다. 약자, 소수자, 빈자, 희생자를 옹호하지 않는 어떤 공동체라도 성령 안에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설혹 그게 가톨릭 교회라 해도 그렇다. 성령의 활동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의 삶이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경험이란 그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어떤 것, 상황을 역전시키고 새로 탄생하는 경험과 같은 것이다. 해방신학자 호세 콤폴린의 말로는 “성령은 강할 것 없는 사람들의 강함이다. 이것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과 자기 실현을 향한 투쟁으로 이끌어 간다.”(『성령과 해방』) 공동체에 나타난 하느님 권능의 현실성, 이것이 핵심이다. 성령이 그 힘의 현실성이다. 하느님께서 창조 세계에 현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생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인간 심성과 관계와 공동체에 똑같이 계시다면, 상상도 못할 가능성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노마드’의 길을 찾아서⁺)

강신숙 디모테오 소비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노마드’(nomad)라는 말은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에 의해 역사 안으로 재등장했다. 그가 노마드를 언급한 이유는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노마드는 유목민을 뜻하는 라틴어로 근동지방이나 중앙아시아와 함께 장구한 역사를 지닌 언어다. 여기서는 유목민이 함의하는 노마드적 가치를 오늘의 ‘여성 수도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성경의 언어로 재해석된 노마드는 역사만큼이나 ‘새로운 삶의 방식, 창조적 이동’과 같은 수많은 질문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노마드의 여성적 주체에 대한 물음

남성의 우월한 DNA는 강건한(?) 자아에서 판명된다. 역사의 무대는 모두 남성들의 것이어서 확고한 목표 의식과 건설, 정복의 문명(제국)은 모두 남성의 업적으로 칭송되었다. 반면 여성은 남성의 그것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 열등하다. 그들은 남성의 보조 역할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여성스러움’을 인정받았다. 지금은 여성이나 남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취급해 온 것이 모두 가부장제의 산물임을 안다. 그러니 주체에 성별을 따지고 생물학적 우열을 가리는 것

+ 이 글은 <기쁨과 희망> 제23호에 먼저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노마드를 기꺼이 ‘여성적 주체’라 부르려 하는 것은 권력의 구조, 인류사에 강고하게 자리 잡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힘의 중심 반대편에서 배제된 자들의 시선으로 세계질서를 바라보자는 의미다. 다만 이때 궁금한 것은 이런 가부장적 지배 구조에서 ‘주체는 권력을 획득한 자인가?’ 하는 것과 힘의 중심에서 벗어난 ‘타자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노마드적 주체는 고정된 ‘영역’을 차지하고 번영을 구가하는 승리, 성공, 위업을 달성하는 자의 주체가 아니다. 이 주체는 땅을 획득하고 이익에 따라 이동하는 현대판 노마드, 이민 혹은 이주노동의 것과도 다르다. 디지털 시대에 세계가 대륙을 횡단하며 이동한다고 해서 이들을 ‘노마드적 주체’라 부르진 않는다. 특히 타자의 욕망에 지배당한 자, 그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은 자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반면, 노마드적 주체는 (넓은) 세계를 주입한 부모와 스승, 공동체의 욕망을 떠난 자, 그들을 배반한 자들이다. 이들은 그들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 창조와 해방의 욕망을 따라 길을 나선 자들이다. 예수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냐?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다.”라는 말을 통해 현실 세계의 욕망을 배척하고 당신이 보여주는 비전을 따라 견도록 초대했다. 특히 그가 광야에서 마주친 악마는 현실 욕망의 집약적 발현이다. 악마는 우리의 아비요, 그 아비이며, 그 아비들이 물려준 세계의 욕망을 나타낸다. 이를 물리친 예수가 광야에서 돌아와 외친 첫 일성은 노마드들이 가고자 하는 ‘새 하늘, 새 땅’이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 떠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적 주체, 노마드다. 성경은 이 노마드의 길로 초대하는 장구한 계시의 책이며, 어디를 떠든, 어느 구절을 만나든 이 초대의 길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해체와 창조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세계를 관통해 나가는 노마드적 주체에서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은 노마드를 여는 주요한 모티브를 선사한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창세 1, 1-2)

텍스트에 등장하는 언어들만 일제히 새로운 주체,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비어있음’이다.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있는’ 미완의 장이 곧 새로운 창조를 예고한다. 새로운 인간의 출현, 새로운 세계질서가 이루어지려면 낡은 세계는 해체되고 비워져야 한다. 기존에 나를 움직이고 형성시킨 세계를 밀어내고, ‘텅 빈’ 여백을 만들어내는 일은 새로운 창조의 필연적 과정인 것이다. 천지창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창세기 저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국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명’을 해체하고자 했다. 그들은 문명에서 출현한 제국적 인간을 해체하고 새로운 아담(인류)의 출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제국은 ‘이스라엘’의 세계관이나 신관과 정면 배치되는 세계였다. 창세기 저자가 바라보는 제국주의는 하느님이 창조한 본래의 세계가 아니었다. 폭력과 파괴를 통한 황금과 권력은 ‘이교도의 것’이며,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다. 이런 세계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었다.(다니엘서의 네부카드네자르의 꿈이 이것을 말해준다.) 창세기 저자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진 궁전과 군대, 무기와 훈련된 군대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이 모두는 곧 먼지로 돌아갈 것임을 선언했다.(창세기 3장) ‘신의 위치’를 탐한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에덴에서 노마드로 접어든 인류의 운명을 대표한다. 신은 에덴을 비워두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새로운 인류를 초대하였다. 이 일은 역사를 통해서 신화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신비가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예고되어 왔다. 바벨도, 노아의 홍수도, 왕정시대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광활한 대지는 텅 빈 공간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 광야에서 “한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이사 40,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와 이후 광야에서 돌아온 예수의 활동이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후 신실한 사람들이 욕망이 뒤엉킨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예언자, 은수자, 하느님의 사람들로 불렀으며, 훗날 ‘봉헌자’ 혹은 ‘수도자’라 부를 것이다.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우든 그들은 모두 어둠의 심연에서 카오스로, 다시 텅 빈 광야로 이동해 나가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갔다.

창세기의 텍스트에서 발견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언어는 이 ‘어둠(절망)에 영이 휘돌고 있었다.’는 표현이다. 성경 저자들의 통찰력, 그들에게 전달된 하느님의 계시는 놀라기만 하다. 예언자(노마드)의 전통에서 ‘어둠 속에 잠긴 이들을 일깨우는 희망의 소리’는 늘 함께 다닌다. ‘영’은 하느님이다. 영은 삼위일체 중 유일하게

여성으로 표현된 위격이기도 하다. 성경 전체를 걸쳐서 ‘영’이 하는 일은 다채롭고, 잡을 수 없으며, 잡히지 않는 바람이고, 물이며, 불로 나타난다. 도무지 정의할 수 없는 어떤 힘, 그러면서도 모든 누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신의 힘이 ‘영’인 것이다. 주로 악과 대결하는 하느님을 ‘만군의 야훼’로, 남성의 신으로 묘사하고, 이 신을 ‘남성’으로 규정짓는 것에 더는 동의할 수 없다. 근대적 주체(강고한 남성적 주체)는 신이 ‘영’이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한다. 영의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 체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순순히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다. 모두가 찬동하고 이의 없이 가는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들이며, 어느 곳에도 정착을 거부한다. 그래서 조직과 체제가 가장 기피하는 자들이 이런 부류의 자들인 것이다.

노마드를 이끄는 영

이집트 탈출의 원시 광야에서 신은 바람, 구름, 불의 형상으로 다가왔다. 이후 바람과 불은 창조, 생명, 부활(마른 씨의 부활)의 이미지로 끊임없이 변모했다. 한마디로 ‘영’은 인간의 언어 세계를 벗어나며, 어떤 언어와 조직과 명령도 그를 포획할 수 없다. 이 ‘규정할 수 없음’, ‘언어화될 수 없음’은 ‘하느님의 영’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철학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것이 이집트 해방과 원시 광야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첫 만남, 첫사랑, 처음으로 ‘교감된 신’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느님’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겠다는 전통을 지켜나갔다. 자신들이 체험한 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중대한 반역이었다. 후에 붙여진 엘로힘, 야훼 등의 명칭은 고정된 신의 명칭이 아니다. 그것은 체험의 ‘형용사, 동사’ 같은 것, 잡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수식어들의 나열일 뿐이다.

인간이 이룬 ‘바벨탑’은 ‘언어’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권력적 문명 세계의 단적인 예다. 바벨탑의 조직과 체계에서는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한다. 명령은 언어를 소유한 자들이고, 언어를 다루는 자들이며, 언어 속으로 모든 세계를 집어삼킨 자들이다. 그들의 권력은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된) 진실을 생산해 낸다. 사실상 이들의 언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창세기의 ‘바벨탑 신화’(11장)는 인간의 무한 욕망에 대한 놀라운 보고다. 하느님은 이들이 ‘일사분란한 언어’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내다보고

획일화된, 전체주의적인 ‘그들의 언어’를 해체시켰다. 바벨의 거대한 우상은 언어와 함께 무너져버린 것이다. 제국은, 영토를 숭배한 자는, 고착된 자들은, 아버들이 물려준 신을 섬긴 자들은 그렇게 무너져버렸다.

그러니 창조는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창조는 순순히 오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영의 방식,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시작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처음 내디딘 땅은 낯선 땅이었다. 그들이 처음 밭다트린 이 예기치 못한 세계는 해방의 흥분과 도취를 산산조각 내고 공백의 땅으로 화했다. 위대한 ‘해방’의 탄생은 실제로는 전혀 위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혼돈, 어둠, 불투명한 미래였다. 해방하는 신과 해방해 나가는 무리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해 나갔다. 이들의 체험은 후대의 인류에게 ‘원형’처럼 존재할 것이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세계에서 습득한 모든 언어를 의심하는 것이며, 자신의 지식이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할 것인지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필터링하는 과정이었다. 권력과 심판의 도구, 처벌할 권리는 모두 어디서 왔는지, 누가 합법화시켰는지, 결국 이들의 손에 죽어나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밝혀내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본 일이 없는 자들, 역사로부터 추방당한 자들, 피부색으로, 성별로, 빈곤으로, 차별로 열외된 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이들 대열에 마지막으로 올라탄 지구 역시 자신의 얼굴과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드디어 자신이 이동해 나가는 주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타오르는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지키는 신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속지 않는 자들”의 이동이 시작되다.

깨어난 자들은 안정되게 살아온 이들이 길을 잃고 방향하도록 돕는다. 이들은 배운 것을 더 잘하라고 복습하는 모범생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가 나는 현재에 의문을 품게 하는 자들이다. 뭔가 더 나은 미래는 없는지, 또 다른 삶의 방식은 없는지, 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곳에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지에 강력한 의문을 품게 할 것이다. 그런 삶을, 그런 가치를 끊임없이 지향하도록 밀어낼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수행해 온 수많은 여성(수도자)들이 존재해 왔다. 이들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수도, 드러나서도 안 되는 조건에 있었지만 그들이 이룩한 창조적 사고와 헌신은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여성 수도자들은 누구보다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들, 적합한 삶의 형태를 갖춘(갖출 수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들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주저하겠지만, 그들이 길을 떠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확신은 비관적인 현실을 낙관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임기응변이 아니다. 이런 확신은 수천 년 역사의 길목에서 출몰해 온 ‘영의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모험과 실험의 길은 단 한차례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이 시대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여성) 설립자처럼 어떻게 창조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교회가 수도자를 정의하는 몇 가지 문장이 있다.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혹은 ‘봉헌자들’이 그것이다. 대체 이 말들이 지닌 실제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다. 그것은 공동체 (혹은 사도직 장)를 잘 꾸려놓고, 안정과 고요와 침묵(기도)의 집이 되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비록 수도회들의 진짜 딜레마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모두가 겪는 일이라 여겼으니 대부분은 굳건했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성을 구축해 나갔다. 수도회들은 저마다 자기 공동체의 꽤 괜찮은 역사와 관습에 기대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상에 ‘속지 않는 자들’로 여겼으니, 진짜 위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속지 않는 자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다. 거짓과 위선에 저항하는 일은 엄청난 시련과 맞닥트리는 일이어서 ‘안정’은 애초에 그들과 맞지 않는 옷이다. 수도자들은 세상의 변혁(구원)을 나서기 전에 자신의 공동체가 변혁자를 길러내는 데 적합한 곳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했다. 수도자들은 그 오래고 해묵은 ‘자기 정의’ 혹은 영혼 없는 정체성을 그만 내려놔야 했다. 그보다는 현재 자신들이 어떤 존재자들인지를 들여다보고, 잘못 매겨진 정의를 바로잡고, 뿌리내릴 어떤 땅도 없는 자로서 시작해야 했다. 노마드는 그런 것이다. 끝없이 질문을 바꾸어 나가는 것, 하나의 길만 고집하지 않는 것, 다양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길이 되신 예수와 함께 길을 묻고, 길이 되면서, 또 다른 길로 이동해 나가는 것, 개인과 공동체가 집중해야 할 우선적 일은 그것이다.

서로의 경계에 가닿기 위한 과정,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름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넓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10수녀 · 문근

수도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옹의 공동체, 길(Guille)

망송 마리 야닉 수녀 · 아쌘시옹의 작은 수녀회

+ 이 글은 프랑스 아쌘시옹의 작은 수녀회(PSA) 총장 Marie-Francoise PHELIPPEAU 수녀와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수도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옹의 공동체를 소개받은 후, 공동체의 코디네이터(책임자) Marie Annick MANCHON 수녀가 PSA의 회지 <Le Pain De Chez Nous>(우리 집의 빵)에 실었던 글을 토대로 국제우편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한 글입니다.

프랑스 리옹시, 줄 베르나가 27번지는 아쌘시옹의 작은 수녀회 수녀님들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다.

이 공동체는 5개의 수도회 총 28명이 함께 살고 있는 대공동체이다.

공동체 수녀님들 대부분은 70대에서 80대이지만, 수녀님들은 여전히 공동생활이 가능하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다. 2019년 현재는 아쌘시옹 수녀회 14명, 프라도회 4명,

최후의 만찬 수녀회 3명, 성직 보조 수녀회 6명, 리옹의 성요셉 수녀회 수녀 1명이 함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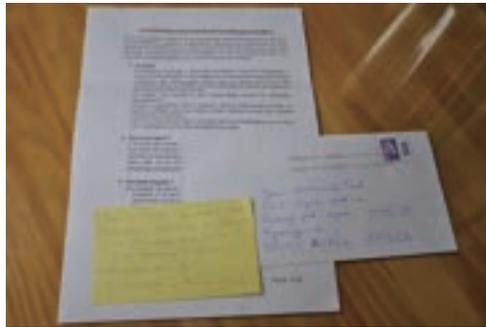
줄 베르나가 27번지 Guille 공동체 건물 전경



공동체 건물 입구

Guille 프로젝트의 시작

이 프로젝트는 몇몇 수녀회들이 설립한 ‘희망의 길’(Chemins d’Esperance)^{*)}이라는 조직을 통해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오랜 시간의 숙고 끝에 드디어 각기 다른 영성과 생활습관, 재능, 상황이 다른 수녀회의 수녀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 2012년이였다. 이때 오랜 논의와 식별을 통해 아홉시용의 작은 수녀회가 소유한 리옹의 Guille 공동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2월에 5개의 수녀회에서 온 12명의 수녀들로 수도회에 경계를 넘나드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국제우편으로 받은 Guille 공동체 헌장



Marie Annick 수녀님과 이메일로 주고 받은 질문과 답변



* ‘희망의 길’은 1989년에 여러 수도회들이 설립한 ‘희망과 환대 그리고 나눔과 연대(Esperance & Accueil et Partage Solidarite Accueil Chemins d’Esperance)’라는 연합회를 모체로 생겨난 사단법인으로, 연로한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단체이다.

삶에 대한 희망이 스며있는 이 사회에서, 연로한 회원들의 증가와 그 회원들이 마땅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은 문제들에 직면한 여러 수도회들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기반이 다른 수도자들이 한 집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시범적 생활에 대한 평가

초기 5년 동안은 서로 다른 수도회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렸다. 초반에는 자매 수도회^{*)}인 아홉시용 수녀님들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고, 점진적으로 성직 수녀회와 리옹의 성 요셉 수녀회의 설립자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프라도 수녀님들의 도착으로 그들과 우리 PSA의 정신이 이토록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7년 여름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홉시용 수녀님들이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게 된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그들과의 이별은 마음이 아팠지만 5년간 함께 생활한 것에 대해 오랜 숙고와 평가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아홉시용 가족 수도회 안에서 나누는 형제적 유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후 아홉시용 수녀회가 떠난 자리에 최후의 만찬 수녀님들이 오셔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Guille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희망의 길’ 연합회에 속해 있고, 그에 따른 평가와 변화들을 받아들인다. 희망의 길 연합회의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공동체를 방문하고, 여러 수도회의 수녀님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적응해나가도록 돕는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기보다는 수도회 연합회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희망의 길을 통해서 작성한 Guille 헌장에 따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계에서 우리의 공동체 생활과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를 통해서 형제애와 희망의 증거자로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본당에서 본당 신자 한 사람으로서 존재의 사도직을 수행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한다.

+ 아홉시용 가족 수도회는 여자 수도회 3개와 남자 수도회 2개가 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매일 아침은 공동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영성에 따라 기도 준비를 한다.

각각의 공동체의 기도 방식과 다양성으로 우리의 시간은 매우 풍요롭다.

또한 공동기도 시간에 각 공동체의 축일들과 총회, 기념일, 금은경축 등의 행사들도 공유한다. 그래서 아솜시옹의 작은 수녀회 150년 행사(2015년), JPIC 사무국에서 제안하는 기도들, 아솜시옹 가족 수도회의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다른 수녀회 수녀님들과 함께 공유한다.

또한 본당 신자들과 함께 하는 복음 나누기 그룹들은 매달 공동체 1층 강당에서 모임을 갖는다. 복음 나누기 그룹들은 참여자들도 다양하고, 나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진행된다. 즉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섞여 공동으로 복음 나누기를 하는데 이 또한 우리 안에 영적인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

식사 또한 5개의 수녀회 수도자들이 모인 '수도회간'(inter)의 특성을 나누는 시간이 된다.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수녀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1층 공동 공간에서 함께 다과를 즐기는 모습(함께 사는 수도회들은 모두 사복 수도회임)



아솜시옹 작은 수녀회 수녀님들의 공동체 식사 시간

마련되어 있다. 전체 공동식사 외에도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 전체 공동체 모임은 각 수도회의 담당자들이 준비하는데, 함께 모여 문제 제기와 토론, 그룹별 과제, 공동 오락, 제안 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도 의논하곤 한다. 모임을 통해서 각 수도회들이 자기들의 영성과 설립 역사에 대한 소개도 한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각 수도회별 영성 나누기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수도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또다시 돌아가면서 수도회의 영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들의 삶은 궁핍하지도 또 그렇다고 느슨하지도 않다. 카드게임이나 글자 맞추기 게임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고, 독서광들도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리옹이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능성들이 마르지 않는 충분한 도시 중 하나이다. 6월 말에는 공동체 소풍을 준비하여 쏬느강(리옹 시내를 흐르는 강)변을 산책하며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눠 먹기도 했다.

몇 년 전부터는 아솜시옹 수녀회 수녀님의 조카이며 체육 선생님인 Anne이 자원봉사로 우리 공동체에 오고 있다. Anne은 사촌인 수녀님이 떠났어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 와주어 자세 교정과 운동을 통해 우리들의 유연성을 책임지고 있다. Anne의 체조반에는 15명의 수녀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들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Guille

Guille 공동체는 아프리카 선교 수도회 신부님들의 공동체와 이웃하고 있다. 그분들 중 두 분의 신부님이 일주일에 두 번 공동체 미사를 해준다. 또 약간 멀기는 하지만 본당도 있다. 상황이 되는 수녀님들은 본당에서 사무실을 지키거나, 교리를 해주는 등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솜시옹 남자 수도회 신부님들과도 교류하고 있고, 은경축과 150주년 행사에는 함께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우리들의 활동 또한 다양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아솜시옹의 작은 수녀회의 영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단체들 이를테면, '각자의 지역에서 잘 나이 먹기' 또는 은퇴자들의 모임인 'CFDT', 이주민들에게 불어 가르치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활짝 열린 문', 수도회 연합회 차원의 기도 공간인 '열린 손' 등이다. 그 외의 활동으로는 교회 활동 단체에서의 활동들인데, 이웃의 요양원에서 있는 미사에서 전례를 담당하거나, 'CCFD'(땅과의 연대'라는 환경단체), 종교 간의 대화 모임에 참석하기, 형제적 방문 등이다. 어떤 만남이나 교육 등은 1층에 있는 큰 강당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복음 나누기 그룹이나 'ACAT'.(학대받는 이들을 위한 크리스찬 행동) 그럴 경우 우리 공동체 안으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열린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향한다.

리옹은 초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 성 이레니오 성당과 성녀 블랑딘 성당이 있다. 이 또한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의 모습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에게도 또한 주제에 따른 수도회들 간의 연합 기도회나 피정, 연수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리옹에서는 다른 종교들에 대한 연구도 언제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할 기회들도 많다. 인구층 또한 다양하고 아주 국제적이어서 우리 또한 그들과의 만남에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이라크에서 참전하고 돌아온 사람, 가정 시노드에 참석했던 한 커플, 카이로에 살았던 선교수도사가 우리들에게 와서 그들의 경험들을 나눠주기도 한다. 아직도 나눌 것이 많지만! Guille에서의 삶은 정말로 우리의 수도 생활의 여정 안에서 한 걸음씩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 나가고 있다.

추신

• 건물 내부 공간은 수도회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1층 강당 및 손님방과 책임자 사무실, 최후의 만찬 수녀님들의 침방과 공동방

2층 타 수도회 수녀님들의 식당과 프라도회 수녀님들의 침방과 공동방

3층 성직 보조 수녀회 수녀님들의 침방과 공동방

4층 아솜시옹 수녀회 수녀님들의 침방과 식당

5층 아솜시옹 수녀회 수녀님들의 공동방

6층 기도 방과 손님방, 학생들을 위한 다섯 개의 스튜디오

• 공동생활비는 어떻게 하는가?

한 달에 1인당 20유로씩 공동 잡비를 책정하여 그 돈으로 공동체 모두의 일 - 축일 선물, 소풍, 공동 물품 등 - 에 사용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동체 모임을 통해 대화를 나눈 후 더 지불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또한 수녀회마다 인원수대로 하루 숙박비용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있으며, 각자의 공동체 내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각 수도회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여 생활하고 있다.

언어, 종교, 국적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텔트의 공동체

손은경 데레사 수녀 · 마리아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습관처럼 향하던 시선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 우리는 새로운 공간과 자연과 사람들 속을 넘나들게 됩니다. 성가소비녀회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다른 수도회 역시 어떻게 그 지역 안에서 존재 자체만으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박 나타나엘 수녀가 프랑스 유학 중 만난 마리아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수녀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수도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의 사도직을 취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2019. 1. 22. 화

+ 축복

벌써 몇 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 거죠? 그곳 하늘에서?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수도회 회지 편집을 맡았는데, 수녀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연락드려요.

2019년 저희 회지의 주제가 ‘경계를 넘나드는 강생을 살아가는 소비녀’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들고,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다른 수도회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기획을 해봤어요.

2013년에 수녀님네 모원에 머물렀던 기억과 함께

마리아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수녀님의 글을 실으면 좋겠다 싶었고, 수녀님이 계신 모로코의 공동체가 궁금해졌어요!

물론 개인적인 친분 때문만은 아니고 수녀님의 수도 생활 일상 안에서 여러 종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시는 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특히 변두리에서 활동하시면서도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이어나가는 공동체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수녀님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연락도 없다가 이렇게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이 어떻게 들릴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수녀님 사도직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어찌면 안정과 편안함 속에 안주하려는 고국의 몇몇 수도자들에게 어떤 비추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낌시용 작은 수녀회에도 글을 하나 요청하려고 해요.

건강 잘 챙기면서, 휴가 오시면 또 연락 주세요!

수녀님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나타나엘 소비녀

#2 2019. 1. 25. 금

수녀님, 고맙습니다. 먼저 저를 생각해 준 것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바라는 답들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한 이유를 말하자면, 일단 제가 여러 사람들과
제 삶을 나눌 만큼의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존재방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고민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이곳 미텔트에서의 삶을 조금 더 경험하고
기쁨과 아픔을 통해 이 지역에 제가 정착되었다 느껴질 때
그때 부탁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의 저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회지에 포함시킬지 아닐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잘 지내시구요, 건강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바쁜 일상 안에서도 건강 챙기면서 주님의 기쁨과 평화
누리길 기도합니다.

손데레사 fmm



#3 2019. 2. 1. 금

수녀님, 그렇게 조건부라도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소비녀지를 만드는 일과 청년들 떼제 기도 모임, 피정 동반, 일상 영신수련
동반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다이나믹하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여러 틀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저 또한 제가 그어놓은 어떤 경계선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냥 그런 저의 수도 생활의 흐름들을 회원들과 또 사람들과 나누는 한 채널로서

회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면서,
그래도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저라는 도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우선, 수녀님의 공동체와 수녀님이 공동체에서 하시는 일을 알고 싶어요.
이 질문에 답을 들어야 다음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녀님 공동체 주소 알려주세요.
올해 처음 만들었던 소비녀지는 pdf 파일로 첨부할게요.
작년 한 해는 '우주'에 폭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의 집인 이 우주(宇宙) 안에서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고 있지만요.

나타나엘 소비녀 마음 모아

#4 2019. 2. 19. 화

평화!!!

나타나엘 수녀님, 잘 지냈어요? 답이 늦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모로코 미텔트 - 해발 1500m 정도의 산악지대이며,
60,000명 정도 살아가고 있는 지역 - 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동체는 5명의 자매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국적 - 프랑스, 스페인, 한국,
세네갈, 모잠비크 - 을 가진 국제 공동체입니다. (수도회의 특징적 카리스마 중에
하나를 살고 있지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모로코 - 이슬람 국가 - 특성상
세례를 준다거나 복음을 말로써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증거의 삶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14명(저희들, 시토회수도원 7명, 2명의 평신도)의 사랑과 일치
의 모습을 살면서 간호사로서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버려진(?)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곳에 정기적으로 봉사자로 가서 만나고, 또한 이웃들과 크고 작은 경조사를 함께 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느님 안에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면...,
미텔트 공동체로 옮겨 온 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되어갑니다. 저에게는 지역 분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를 배워야 했고(아직도 초급 수준으로 인사하는 정도이지만) 어떻게 지역 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를 찾아야 하는 시기였고, 아직도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성마비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기에 물리치료사는 아니지만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일상생활 동반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를 아이의 엄마와 함께 찾으며 일상의 작은 기쁨과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요.

#5 2019. 3.6. 수

진리와 애덕



나타나엘 수녀님! 사순시작입니다. 먼저 은혜로운 사순시기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답이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저희는 불어로 소통합니다. 모로코가 아랍어권이지만 프랑스 보호령으로 있었던 영향에서인지 아랍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불어를 사용하고 일반 사람들과는 불어나 아랍어(모로코 아랍어)로 소통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많은 분들이 불어를 모르는 때문에 좀 더 깊게 다가가고 만나기 위해서는 아랍어가 필요합니다. 물론 살아 갈수록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언어가 유용하긴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필수 요건은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마음이 마음을 읽고 있음을, 사랑이 전해짐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Sr. 안나(세네갈), Sr. 호세피나(스페인), Sr. 조안나(모잠비크), Sr. 데레사(한국), Sr. 마리(프랑스)

공동체 수녀님들을 소개할게요. (오른쪽부터)
마리수녀님은 90세에 프랑스 분이십니다. 15년 따뚜원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저희 공동체에서 15km 정도 떨어진)에서 미취학 아동들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머무시지는 않고 미텔트에 계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곳에 올라가셔서 주민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면서 많은 시간 공동체를

돌보고(식사 준비, 정리, 기도실) 계십니다.

조안나 수녀님은 30대의 모잠비크 자매입니다. 작년 10월 공동체를 이동해 왔고, 간호사로 지금은 보건부의 임용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곳 모로코는 수도자들이 교구의 증명을 통해 정부기관, 병원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호세피나 수녀님은 82세의 스페인 분이십니다. 간호사로 오랜 시간 나환우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양로원에 봉사를 다니시면서 공동체 경리로 집안일을 돌보고 계십니다.

안나 수녀님은 40대의 세네갈 자매입니다. 공동체 책임자이면서 간호사로 보건소에서 일하며 주변 시골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소는 Dar Myriem Quartier Taakit B.P. 316 54350 MIDELT MAROC

손테레사 fmm

#6 2019. 3. 6. 수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 일은 시간을 천천히 두고 수녀님과 저 사이의 편지 형식으로 취재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신 시간에 답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지내시다가 나누고픈 일화가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다섯 분 수녀님들의 현존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미델트에 가득한 것만 같아요.

수녀님들의 현존 자체에 감사드리며,

한국에서 나타나엘 드림

탈핵 비움 실천 운동



청명^{*)} 장미영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

저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탈핵희망 국토 도보순례’라는 운동에 참여하면서 탈핵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걷고 또 걸으며 탈핵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동지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탈핵을 알리는 것발과 현수막을 보이며 전단지들을 나누었습니다. 호응과 냉대의 경험이 힘이 되기도,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핵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삶과 직결되는 핵문제는 우리 생활의 변화로 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탈핵 도보순례길에서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세속명 대신 ‘청명, 나무늘보, 판지’ 등과 같은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나이와 직책에 따른 거리감과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서로 동등하게 이름을 부르는 수평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핵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수의 국민들은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편리와 대안부재라는 이유로 탈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어쩌면 과다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는 지금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이미 물질주의에 적응된 안타까운 현상이겠지요. 그래서 탈핵운동은 선전 위주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생활운동으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쿠시마 8주기 추모행사에 다녀오고 난 후 3월 10일부터 제안문을 시작으로, 저와 가까운 지인들의 사례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담아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지요. '비움 모험 실천'을 하자고요. 310여 명쯤 될 거예요. (지금은 '탈핵 비움 실천으로'라는 타이틀로 단체 카톡방 1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게 소유하고 소박한 자유인이 되자.”

“탈핵을 소박한 생활운동으로 접근하자.”라는 행복한 제안을 했지요.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사회적으로 항상 이슈화되는 문제이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면 실천과는 괴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실천과 함께 공유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서로가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탈핵과 비움 실천과의 연관에 대해 의아해하고 계신 분도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스스로도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이야 대략 이러하지 않겠는가라고, 부족하지만 나름의 생각을 모아 봤습니다.

탈핵 비움 실천(탈핵 비움 모험 실천)이란?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탈핵과 비움 실천이라는 연동의 대안생활운동입니다. 이는 핵의 위험과 폐해에서 벗어나고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물질적 소비를 줄임으로서, 보다 나은 자신과 사회를 지향하는 생활운동이자, 모든 생명체의 평화를 위한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실천'운동의 중심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없습니다. 굳이 들자면 누구나

대표자입니다. 이는 권력 없는 운동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이웃과 함께 실천을 공유하는 연대의 운동입니다. 지인 중에서 '나비효과'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만, 생활 곳곳에서 탈핵과 비움 실천의 의미가 확산될 때, 탈핵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우리네 삶의 질도 나아지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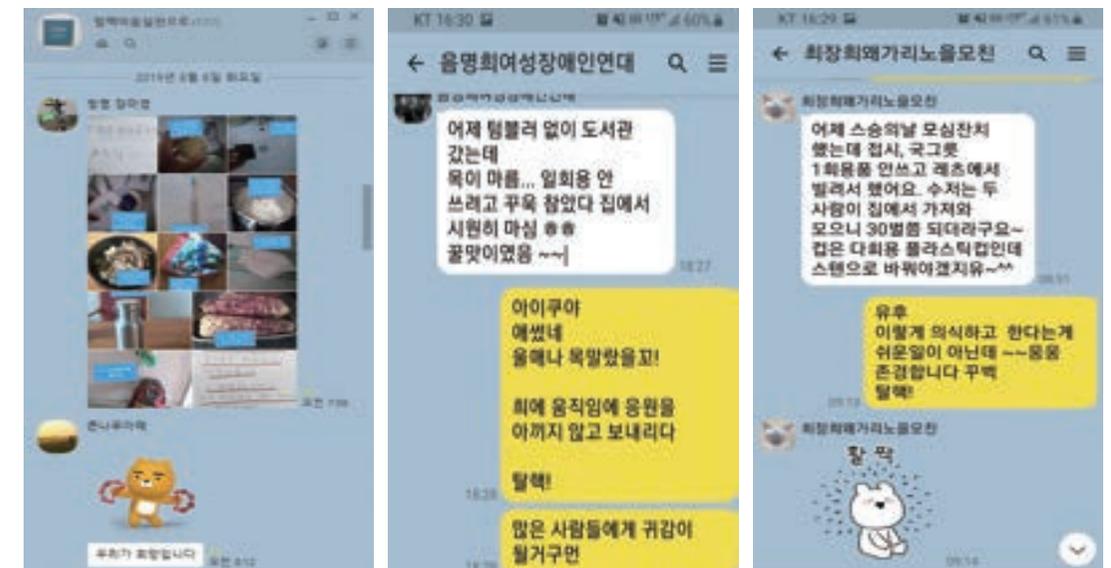
시작은 하였지만, 스스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보내주시는 사례들을 모아 매일 아침에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분류하여 보내는데, 오늘 멘트는 뭘 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많지요.^^

최근에는 '비움 길'이라 하여 살고 있는 청주로부터 시작하여 실천 동지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일정을 정하여 같이 순례도 하고, 사진도 찍고, 탈핵 비움 실천의 의미를 나눕니다. 다행히 좋은 동지들이 있어 그 길이 즐겁기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누구나 '비움의 소박한 삶'을 통해 탈핵을 이루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 7. 17.

#탈핵은 마라톤입니다#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입니다. 비움실천은 '희망의 길'입니다.





오아시스를 떠나 세상으로 동행하신 성모님들

최경희 비아 자매 · JMJ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나 전화기를 확인
하니 어제 저녁 보낸 문자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형님 벌써 주무시나요?
작년 오늘 루르드 그 밤이 생각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2019년 5월 본당에서 이스라엘과
성모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방짜이었던 자매의 문자였습니다.
이날은 벌써 부활 5주간이었고,
성경 속의 사도들은 세상을 돌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나의

예수님과 나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깊은 무기력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매의 문자를 받고
1년 전 5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떠나는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지향은, 그동안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 안에서
작업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그 땅을
밟으며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성모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질문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밝은 이스라엘의 외모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성지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과 만났던 기억들은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 감사를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성모 성지로 가기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산타마리아 데 몬세랴트의 검은 성모상 바실리카에서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이나시오 성인이 회개 후 자신의 기사도를 바치며 가난과 겸손을 봉헌했던 그 검은 성모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체를 영할 때 나도 하느님과 성모님 앞에 무릎 꿇어 서원하였습니다. 그날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습니다.

파티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행들과 떨어져 성체조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성모님에 대해 들려주실 중요한 이야기가 아직도 있는 듯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너를 나에게 이끄신 분은 나의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혼란과 충격에 싸였습니다. 그때까지 성모님은 저에게 예수님

때문에 등장한 예쁜 조연 배우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저의 불손한 생각과 언행, 예수성심을 상하게 해 드린 수많은 기억들을 안고 루르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순례와 기도 그리고 침수가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왔을 때 어머니는 침수 행렬이 너무 길어 한 번 밖에 직접 들어가시지 못하신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아침저녁으로 물을 길어다 숙소에서 뒤집어 쓰셨습니다. 성모 신심이 거의 없던 저에게는 어머니의 모습이 매우 생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침수에 대한 저의 간절함은 성모님께 행한 수많은 불충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회개의 예식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많은 병자들이 허락된 ‘새치기’를 하고 줄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탓에 저는 계속 밀리고 밀려 일행 중에 가장 마지막에 침수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마음이 여러 번 출렁거려 부드러운 향의 한 번쯤은 했을 텐데, 그저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저는 성모님을 어머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순례

시작부터 생겼던 알 수 없는 질환이 오후부터 낮기 시작하였습니다.

순례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 방작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순례 지향은 저와는 반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성모님과는 정말 친해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는 어색하고 많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수녀님인데 동생과 혼인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고 체험할 수 있기를 이번 성지 순례 기도지향으로 두었고, 하느님께서 넘치도록 그 청을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저는 갑자기 ‘이 친구가 순례 중 나의

성모님이셨구나!’ 성모님은 저 하늘 위 구름에 싸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주변에서 성모님의 얼굴을 찾곤 합니다. 서울 JMJ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듣고 가입 권유를 받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마음에 동이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약 5년 전 하상바오로

수녀님의 권유로 JMJ에 가입했을 때도 성모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은 저에게 ‘성가정’의 영성은 왠지 멀리 느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집단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여 가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울렀다 수녀님의 도우미 역할을 하다 보니, 이 모임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까를로 까레도, 성녀 소화 테레사, 토마스 머튼, 십자가의 성 요한을 읽고, 성 이나시오를 만났던 저의 젊은 날들이 수도원 울타리 안을 편안하게 느끼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내려오신 하느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계를 넘어 사신 성모님과 성 요셉, 지역과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사셨던 성 신부님을 배우고, 성모님을 닮은 수녀님들과 회원들의 모습을 통해 저도 작은 경계들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막 한가운데 아름다운 오아시스에서

하느님과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으로,
JMJ로 왔습니다. 세상으로 나왔지만
저는 한동안 발코니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와 이제야 예수님께서서
머무시고 일하시는 마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일상을 사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동네로
실제 들어왔습니다.
하느님께서서 JMJ와 일상을 통해,

특히 성모님을 통해 올 한해 또 다른
경계를 넘어가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이 글을 정리하고, 본당 성모의
밤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나가고 예수님께서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알렐루야!



일의 흐름을
기도가 끊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흐름을 일이 이어준다.
그 일은
내가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이기 때문이다.

- 소비녀들의 생활글 모임에서 -
2020. 1. 10. 금

다 리



내어준다



설레이다

2019년 도장리 내림의 집 비전



관계하다



가다

비전 1 내어준다

강생의 영성, 자기를 쪼갬,
자리와 시간 등을 내어준다.





비전 2 관계하다

서로 돌보며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비전 3 간다

역동적인 것,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과의 연대





비전 4 설레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삶이 설레이는 것을
뜻한다.



선부동분원 공동체 소비녀 가족

안산 선부동 공동체, 함께함의 사랑

손성현 다니엘라 소비녀

타인의 슬픔에 대해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음에도 이제 지겹다,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참혹하다. 그 참혹함에 마음이 떡떡해지던 즈음인 2018년 2월 말에 안산에 왔다. 내가 살아가면서 힘을 쏟아야 할 일이 누군가의 다친 영혼을 달래는

길이라는 생각이 간절했다. 나 자신도 많이 시린 시기에 마음으로만 와있던 안산으로 몸도 옮겨 왔다. 사람이 배울 만한 소중한 것과 어려운 것이 타인의 슬픔이라는 기대와 염려를 지닌 채...

“수녀님, 오늘 00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자식이 보고 싶어 미어지는 가슴을 치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는다. 그리고 내 눈에도 방울지는 눈물을 감추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지도 못하겠고, 무엇을 하자고도 못 하겠고, 어디를 가자고도 못 하고... 그냥 안산이라는 지역에 주민으로 함께 있으며 유가족들이 부르면 대답하고, 인사를 건네면 받고, 아프면 집이나 병원으로 달려가고, 진상 규명의 목소리에 내 소리를 엮곤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녀를 불시에 잃은 극심한 슬픔과 아픔에 시달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울고 소리치며 만나고 모이고, 울다 못해 소리도 못 내고 신음하거나 불안에 갇혀 숨죽여 살아가는 곳에서 이웃으로 지낸다. 어떻게 슬픔을 달래 드려야 하나, 과연 달래질 수 있는 슬픔일까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변해야 하는 것들은 바뀌고, 변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이 변하지 않고 지켜지기를 소망하며 지낸다. 내가 이곳에 소임 오기 전에 먼저 소임을 하신 수녀님들이 그랬듯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보며, 들어주고, 손잡으며 부디 한 점의 위로라도 호흡하기를, 제발 조금이라도 힘을 내기를 바라고 바라는 나날을 살아간다. 우리 소비녀들이 이곳에 온 의미를 되새기면서 유가족들이 어찌하지도 못하고 가장 힘겨워할 때 예수님의 연민으로 함께 함의 사랑을 행한 전임 수녀님들의 노고를 이어 지내려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 시작한 안산 공동체의 파견 목적은 강생의 삶을 살기 위해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와 가난을 선택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그 함께 함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고 극도의 고통에 빠진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웃이 되어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다. 2014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선부동 지역의 주공 아파트에 작은 집을 전세로 얻어 ‘강생의 터’를 마련하고, 2명의 수녀가 총원 소속으로 파견되어 소임을 해왔다. 그러던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목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부동 본당 전임 주임 사제 김 마르코 신부님이 우리 수도회에 전교 수녀를 초대하였고, 강생의 터도 인천관구로 사도직이 이관되어

2018년 2월 말에 선부동 성당 부속건물에 소비녀들의 공동체선부동 분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새 보금자리에서 본당 수녀 1명(현재 이 프랑소아 수녀), 모래놀이상담 담당 수녀 1명(현재 조 요셉 수녀)과 방문사도직 소임을 받은 내가 공동체를 이루고, 강생의 터 소임을 맡아 하고 있다.

너무 허망하고 어이없게 한꺼번에 사라진 많은 생명들 때문에 안산에서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게 된다. 또 그런 귀한 생명을 더 잃고 싶지 않음을 간절히 바라기에 내가 소임 오기 전 이곳 공동체 수녀님들은 생명이 꺼질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찾아 분연히 나아가셨을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함만 실행하는 사도직을 하는 강생의 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가지 고통 속에 있는 세상과 사람에게 내리셨기에, 소비녀들은 죽고 싶을 정도로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살의 유혹을 받으며 절망으로 낮이 격인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도 함께 하는 강생의 터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소비녀는 안산 자살예방센터(생명사랑센터)의 콜을 자주 받는 몸이 되었다. 이곳에서 만나는 대상자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자살고위험군’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희망자 등인데, 삶을 포기하려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리워, 그래도 살아가도록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강생의 예언적 소명을 이 세상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소비녀이기에, 인간의 권리나 존엄을 지켜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주고자 힘쓰고 있다. ‘이 시대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연대하며, 가난한 이웃에게 희망의 표지가 된다.’는 수도회 사도직의 사명으로 마음을 밝히고 넓히며,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지만, 소비녀는 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함께함과 돌봄과 연대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아주아주 간절하게...

간절한 그 발걸음이 향하는 첫째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함께함이다.

2018년 4월까지의 화랑공원에 분향소가 있어, 아이 어머니들과 함께 분향소 미사를 자주 드렸다. 참사 4주기 추모식이 끝나고 분향소가 없어진 후에는, 수원교구에서 운영하는 생명 센터에서 주관하는 세월호 미사가 매주 금요일에 있어, 한 달에 두 번 정도 유가족 어머니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점심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눈다. 또한 주 1회 치유공간 이웃에 가서 어머님들을 위한

치유 밥상을 거두고 있다. 장금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든든한 실장님이 계셔 요리에는 기웃거리지 않지만 다듬기, 상차림, 설거지, 다과 준비 등을 한다. 이 일들 중에서도 나는 밥 푸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을 푸면서 어머니들이 따뜻함으로 배부르기를, 밥이 주는 정겨움으로 마음 안에 위안이 가득 차 오르기를 빌어댄다. 이런 염원을 밥그릇에 푹푹 눌러 담으며, 그날 오신 어머니의 아이 이름을 속으로 부르는 기도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식사 후에는 어머니들과 뜨개질을 하고,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416 기억교실과 기억 저장소,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이 모여있는 안산 하늘공원, 평택 서호 추모관, 화성 효원 추모관에 가서 아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거나 연도를 바치고, 도저히 기쁨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한다. 유가족의 가정, 직장(가게), 활동처(공방, 목공소, 광화문, 가족협의회, 치유공간 이웃, 생명 센터), 병원(입원실, 응급실) 등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눈다. 먹을 것, 책, 비타민제, 자그마한 선물 등을 들고 가서 나누기도 한다.



2018년 10월 '엄마랑함께하장' 행사에 수련자들이 도우미로 함께 함



세월호 참사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하늘공원에서 한가위를 맞아 위령미사를 봉헌하는 모습(수원교구 김승만 신부님 집전)

416 추모식은 필수로 참석하고, 어머니들의 합창과 연극 공연에 가서 뜨겁게 박수 치고, 유가족들이 펼치는 생명수호잔치, 엄마랑함께하장, 여러 전시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도우미 활동을 하기도 한다.



총원 초대 받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미사와 식사를 마친 후 총장 수녀님과 총원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치유공간 이곳에서 뜨개질하며 세월호 어머니들과 담소를 나눔

천주교 신자 어머니들과는 2018년에 렉시오디비나를 했고, 총원도 방문했으며, 한국 외방전교회에서 마련한 피정을 주선하고, 위령의 날에는 하늘공원에서 추모미사를 준비하여 봉헌했다. 2019년에는 어머니들의 개인 성향을 고려하고 좀 더 내밀한(?) 담소를 나누고자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 1월부터는 아이들 생일에 문자를 드리고, 어머니들의 본당이나 생명 센터에 미사 지향을 넣어 가능한 생일 맞은 아이 어머니와 함께 봉헌하고 있는데, 이 작은 기억에도 위안을 얻으신다. 4주기 이후 세월호 관련 기관들이 차차 안산을 떠나는데, 성가소비녀회 수녀원은 희생된 아이들의 형제자매를 위한 자조모임까지 총원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등 계속 유가족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고 있다며 고마워하신다.

둘째는 자살고위험군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및 그 가정들과 함께함이다. 우울과 공포 및 불안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갑자기 쓰러진 대상자에게 개입하여 신속하게 응급실 치료나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자와 연계하여 증상을 관리하는 일을 간혹 하게 된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 바보나눔에서 지원해 준 차량을 활용하여 대상자 가정과 상황에 따라 직장 and 병원, 기관 등을 방문하여 정서적인 지지와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대상자 중에서 특히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관련 상담소를 연계해 치료적 차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을 다양하게 앓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지원도 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위기가 닥친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 차상위 및 기타 빈민은 아파도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만성적인 질병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이 있어도 병원 동행이 어려운 형편이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병원 동행을 주로 하고 있다.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은둔형 외톨이,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 이분들을 찾아가 지속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하고, 집 바깥으로 나와 자연과 더불어 지내며 치유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야외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식이나 문화활동 동반을 통해 질병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고 있다. 알코올 의존치료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한 실력(?)을 바탕으로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 중독 상담을 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대상자들이 단주 생활을 유지하도록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봉사자를 활용해 대상자 욕구(예: 성가로 배우는 한글)에 맞춘 한글 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및 그 가족들과의 함께함이다.

지적장애와 시각장애, 신체장애(왜소증, 희귀질환, 외상 등)로 고생하며, 연로하여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가난하기까지 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찾아가 정서적 및 경제적 지지를 하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주고 있다. 가난으로 인해 청소년 자녀들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관구나 개인 후원자와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학기 준비를 해주고, 멘토를 연결하여 아이들의 사회성 향상을 돕고 있다.

이상의 활동들을 통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 7, 29)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는 좋은 뜻을 가진 선한 이웃이 참 많다. 많은 방문과 연계 및 지원 활동을 해야 하는데, 특수사도직 공동체로 독립되어 살지 못하고 본당공동체에 속해 한참 선배인 수녀님들과 지내는 제한이 많을 것이라 우려했지만, 오히려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돌봄과 응원을 받으며 지낼 수 있어서 힘이 솟는다.

게다가 공동체 수녀님들이 본당 사도직 차원과 모래놀이상담으로 대상자들을 지지하고 돌보아주어 강생의 터의 함께함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신다.

본당 신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함의 손길을 보태고, 교구로 인사이동되어 가신 김 마르코 신부님도 물심양면 기운을 실어주시니, 감사 감사를 읊조리며 지내고 있다.

또한 전임 수녀님들과 함께 했던 봉사자들, 본당에서 만난 새로운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협력해 주어 든든하기까지 하다.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문을 두드리다 보면 ‘이력’(異力: 다른 힘, 하느님의 힘)이 활동하고 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와 시청 사례관리팀에는 기초생활수급권 · 긴급지원 · 장애인 활동도우미 한부모가정지원 등을 의뢰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중독관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에 신청하여 연결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성안드레아병원, 고대안산병원, 한도병원, 에이스병원의 사회사업팀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전액 또는 감액의 혜택을 받았다. 주동현 치과 치료와 한도정문약국의 나눔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받는다. 그 밖에도 성가복지병원, 수원교구, 평화의 집, 사랑나눔터, 가톨릭여성상담소, 안산시 기사사도회 등 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들이 필요한 치료 요양, 입소, 장학금, 교육, 상담, 생명지원금, 도시락 배달, 영적 활동(피정)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심장재단, 성서와 함께, 실명예방재단에 사연을 기고하여 도움을 호소하여, 심장수술과 학대 가정의 위기를 넘기고,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청년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변화 등이 기억에 꼽히고, 7월에 1명의 자매가 백내장 수술로 환하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음에 설레고 있다.

주님께서는 미약하고 미천한 도구이지만 내가 품은 지향과 움직임을 통해 나눔과 돌봄이라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함께 해주신다. 이곳 대상자들의 문제들이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어려움이요 심각한 위기들이어서 잘 변화되지 않지만, 이들은 강생의 터의 함께 함으로 잠시나마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 잠시의 기쁨이 활력이 되어 지역사회 기관들도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가 고취되고, 대상자들도 놓으려던 삶의 끈을 더욱 부여잡기도 하고, 나아가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는 생명의 순환을 일으킨다. 서로서로 연대하는 도움의 손길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느님이 활동하심을 확신하고 그 신비에 경탄하게 된다.



장애인 가족을 모시고 강생의 터 봉사자들과 함께 한 성지순례 (요당리성지) 세월호 유가족 총원 방문 기념 사진 (요당리성지)

생명은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말을 하며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곳에서는 작게라도 생명을 가꾸고 돌보고 보살피고 키우는 실제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지니셨던 사랑의 마음, 그 연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과 사라지는 것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여러 생명이 일어나 반짝이고 빛나는 나날에 함께하고 있는 큰 기쁨을 누린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시다. 살리시는 사랑 자체이시다. 그 사랑을 따르고자 폭력과 학대로 인해 어둠에 갇힌 사람들, 가난과 소외의 질곡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배제로 인한 상처로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의 호소와 탄식을 들으며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와 어려움에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당부가 내 안에 울려 퍼진다. 라자로를 살리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이웃들을 위해 속 끓이고, 꺾고, 애원하고, 가보고 또 가보고, 울고, 뛰어다니고, 부탁하고, 달래보고, 설득하고, 인내하고, 치우고, 기다리다 보면 놀랍게도 부활을 만나곤 한다.

여기 사람들이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도 사는 곳이 안산’이라고 하는데 나의 소망은 함께 하는 가난한 이웃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살겠다 살겠다 하는 곳이 안산’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꿈이 너무 아무진가?

하얗고, 완벽하고,
깨끗한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쓸고, 닦고, 버리고, 태우는 동안
지구는 불타는 거대한 쓰레기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망친 인류는
먼 우주를 내다보며
이주할 새로운 행성을 찾으라고
여기, 지금,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삶의 방식의
전적인 변화를 여전히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림 · 황누리 예수아 소비녀

배론 생태 공동체 : '닭' 시골을 닭다, 생명을 닭다, 우주를 닭다.

공동체 목표 : '인간 중심' 사회에서 파괴된 지구 공동체를
창조 목적대로 되돌리는 삶

'인간 중심'으로 파괴된 지구 공동체 되살리기

- 자본주의 의식하기 : 자본에 물든 우리의 의식, 행동, 생활방식 의식하기
- 자본주의 반성하기 : 생태계를 훼손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하기
- 자본주의 거부하기 :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생활방식을 생태적으로 바꾸기
-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기
- 농사 부분과 살림 부분을 나눠서 살아보고, 1일 2식 실천, 걸어서 미사 가기

생태적 공동체 삶을 향하여 : 자본주의 vs. 생태

권용희 빈첸시오 수녀님

“지구는 모든 사람의 기본욕구를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곳이다.”라는 간디의 말처럼, 필요 이상의 것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흐름과 물질문화는 생명의 멸종, 바다와 수질의 오염을 심각하게 만들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공간을 늘려가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삶으로 떠오르는 ‘생태적 삶’의 방식은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인 생활 안에서 ‘생명으로의 확고한 전환’과 ‘참 인간다움’을 되찾는 것이다. 인간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면서, 파괴와 폭력으로 일그러지고 산천을 파헤치는 자본주의 문화는 여전히 ‘자기 욕망과 악의 유혹에 넘어가거나’(야고 1, 14) 갈등의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존하며, 존중하는 일상 또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 지구와 우주가 나와 무관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한다면, 무엇보다 세상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생태계 공동체의 절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고통받고 있는 지구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생태 사도직에 집중한다.’는 것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역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그 방법은 농적인 삶, 농촌, 농민이라 하겠다.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농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하느님이 아담에게 주신 관계 회복의 선물이 바로 농사였음을 기억한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히브 11, 3)

씨앗을 뿌림은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행위임이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농사의 기본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를 다루는 것이니, 시간은 걸리겠지만



살아있는 흙에서 생명을 기르고, 존중하는 문화, 살아있는 관계와 소통이 돌봄과 회복으로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의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몸을 사용하여 흙과 친해지는 움직임은 이웃과의 만남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발걸음으로 이어진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균형을 이루는 토착 농업은 자연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삶의 양식들도 만나게 해준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뿐이고, 생명 에너지를 가진 농작물은 생명 에너지가 있는 땅에서 자란다. 흙은 곧 세상이고 지구 공동체이다. 2018년 배론 생태 공동체의 정착에 제일 많은 도움을 주신 형제님을 통해 아직은 누군가의 필요를 지나치지 않는 자발적인 선택의 농적 정서가 남아 있음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다. 고통받는 지구 생태계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를 지향하면서, 농사짓는 마을의 주민이 되었다. 여기 배론 생태 공동체는 교회, 수도원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마을의 구성원으로



작은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지구 공동체의 절규와 농촌의 소외됨과 생태계의 절박함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나자렛 일상을 살고 있다. 배론 공동체의 목표는 인간 중심 사회로 파괴된 지구 공동체를 창조목적대로 되돌리기 위해 자본주의 의식, 반성, 거부의 생활방식이다. '창조목적대로 되돌리는 삶'을 위해 먼저 우리 공동체는 회심과 양성을 위한 장소이고, 생태적 공동체의 삶에 관심 있는 이들과 주민에게 열린 공동체로 나아간다. 마을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기에 마을 회관의 회의, 마을 청소, 놀이, 총회, 행사에도 동참하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 방문과 먹거리 나눔을 하면서 배론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해, 친교를 나누고 있다. 지역 상황에 맞는 고민과 선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계속 변화되어가는 중이다. 고정과 완성이 아닌 일상의 삶으로써 살아가고자 하기에 끊임없이 전환과 식별이 계속되는 여정 중에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순환적인 마을의 실질적인 공동선의 필요에 함께하고, 몇 가구라도 생태적 소규모 농장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자급 자치의 날을 희망한다.

**“늘 변함없는 자연의 리듬 속에는 끝없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확신이다.”**

- 레이첼 카슨 -

상업화된 시장의 경제 흐름을 거부하는 보다 자유롭고, 단순한, 개성이 담긴 삶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농적인 생활로 소비를 줄이고, 삶의 자급률을 높이는 자급자족의 생활을 지향한다. 당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근원인 자본주의 소비, 생산,



성장 중심에 몰든 우리의 의식,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작은 부분부터 생태적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매주 독서, 영화 포럼과 기도,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양성하고, 공동체가 함께 내면화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농적인 생활과 잃어버린 생명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한 달에 1번 독서 피정과 자체 모임, 주변 농가 방문, 살레시오 살레 장터에 함께 하면서, 적극적인 나눔 속에서 현실적인 고민과 친교로 공동체 합의를 통한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폭력과 착취의 부정적 측면에서 생겨난 생태적인 삶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각성하고, 20세기를 살아낸 사상가, 실천가들의 연민, 용기, 도전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소비문화에 길들여지고 의존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자연에 무리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것을 취하는 선택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시간을 봉헌하며, 지구 공동체로 나아가는 환경보존을 지향하며 1일 2식을 실천하고 있다. 영농비의 생태적인 자급자족을 위해 생활비를 떼어 저축하고, 학생 농부에게 '농민 기본 소득' 지원을 계속 실천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전례를 함께 하고, 식사 초대, 먹거리 나눔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만들고 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소박한 생활이 상처 입은 생태계에 치유능력을 되돌려주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내려야만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시는 설립자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 농부는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키우고 살리며 창조하는 존재이다.

생태는 소통과 관계이며, 계획과 틀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변화의 호흡이다. 서로의 에너지가 부딪치고, 아픔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사도직과 지역에 따라 각자의 존재 시작에 이미 모든 감각과 상호 관계성이 주어졌고, 빛에서 나왔으니 우리 각자는 모두 빛이 된다. 공동체의 작은 이 불꽃들이 자유롭게, 기쁘게 번져나가길 희망한다. 꺼져가는 불빛처럼 고갈되는 자원과 황폐화된 공동체 현실에서 자본 중심의 어둠과 불신을 통과해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청한다. 고통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아픔을 견디어내게 해주는 힘은, 다만 '주님 현존에 의탁하는 믿음'임을 기억하며, 흠과 더불어 만물에 깃든 거룩함에 주의를 기울이며, 예수 따름과 닭음의 길을 하나뿐인 지구 공동체와 함께 걸어간다.

“주님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그는 비틀거리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37, 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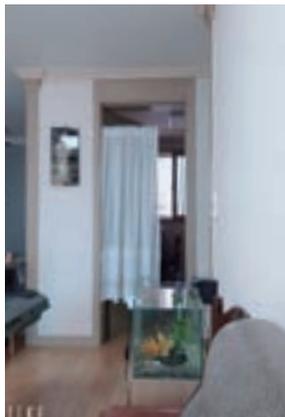


주님의 들판에서 푸른 생명력이 활~짝~ 틔워지길 기도하며~~~

강선주 에녹 소비녀

"저는 15살 때, 집에서 살 상황이 안돼서 거리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서 씻을 데도 없고, 물티슈로 닦고 일주일 정도 못 씻은 적도 있습니다. 겨울에 잘 곳이 없어서 공원에서 잘 때는 너무 추워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화장실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지 배웠습니다. 편안하게 잘 곳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18살에 지금의 쉼터에 들어와서 작년엔 방송통신중학교에 복학해서 졸업했고, 올해 스무살이 되어 1월부터는 자활사업단으로 공원매점을 다니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반을 저축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 혼자 자립하기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 자립지원금을 신청할 때 썼던 H의 글 -



2015년 10월 1일 소화테레사 축일에 활짝이 시작되었다.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며, 누군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집과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돌아갈 가족은 없지만 그럭저럭 있을 만한 쉼터나 그룹홈에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도 저도 안되고, 쉼터 담당자들의 말로 '노 답(NO! 답)'인 아이들이 있었다. 여러 사정으로 귀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곳저곳 쉼터를 연결해주어도 얼마 못 버티고 튕겨져 나오곤 했다. 때론 아이들이, 때론 쉼터 담당자들이 두 손을 들었다. 이들에게는 그저 안전하게 있을 장소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저 좀 보듬고 함께 데리고 살아줄 사람이 절실했다. 그게 가정이고 가족일텐데, 그 가족이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니... 그렇게 상처는 상처를 낳고, 그러다보니 쉼터라면 부정적인 경계심부터 드러내기 일쑤였다. 수녀원 차원에서 금강아파트 한 채를 이들을 위한 쉼터로 내어놓았다. 쉼터의 이름은 엘리사 수녀님의 아이디어로 의미 있는 '활짝'으로... 원래 정식 시작은 2016년

3월이었는데, 친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고 검찰 조사 중에 있던 H의 가족들이 신고 철회를 위한 협박과 회유를 위해 부친 곳곳으로 아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서, 피신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급한 대로 2015년 10월 1일에 문을 열었다. 나와 함께 살아보겠냐고 하니, 아이도 그 상황이 힘겨웠던지 흔쾌히 동의를 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활짝은 그렇게 별다른 준비 없이 필요에 의해, 단지 기쁠 곳, 쉴 곳 없는 아이들에게 '집'이 되고 싶었던 바람만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활짝에서는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가정 내에도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다. 역시 그런 이유에서 활짝은 프로그램도 없다. 집은 누구에게나 그저 좀 편하게 널브러져 있어도 좋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 그저 그렇게 잠깐이라도 그들이 몸을 누일 동안은 '집'이 되고 싶었고, 가정이 되고 싶은 바람이었다. 그래서 아이와 이곳은 다만 쉼터가 아니고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의 집'이며, '함께 즐겁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배려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함께 의논한 끝에 '잠잘 때는 화장 지우고 씻기, 귀가 시간은 12시, 청소는 일주일에 1번, 식사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같이 먹기, 늦거나 외박하게 되면 미리 연락해 주기, 혹시 새벽에 외출할 때는 깨워서 이야기하고 나가기'로 정했다.

그렇게 수도공동체로부터 나와 험난하고 역동적이며 박진감 넘친 아이들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H는 이미 15살 무렵인 3년 전부터 만나왔으니, 기본적인 관계는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냥 함께 살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건 나의 큰 오산이었다.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과 내 생활공간과 시간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건 천지 차이였다.

식사시간도, 생활시간도, 수면시간도,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었다.

처음에는 활짝 담당자가 없어서 내가 별사탕(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에 출퇴근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나는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는 자고, 나는 자야 하는데 아이는 잘 생각이 없었다.

H와 함께 보낸 첫날밤, 새벽에 TV 소리가 시끄러워 나와 보니 온 집안에 불이 다 켜져 있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정말 말 그대로 눈부시게 환한...! 시끄럽게 혼자 떠들어대는 TV 밑에서 H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가 편안히 지내길 바라며

집에서 제일 큰 안방을 H의 방으로 내주었는데... 그냥 조용히 등과 TV를 끄고, 일어나면 놀랄까 봐 주방 불만 켜놓고

들어와서 다시 잤다. 또 어느 날은 새벽 2~3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깨어 나가보면, 심심하다며 외출하는 중이었다.

몇 시에 들어올 계획인지만 묻고 가족들이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니 조심해서 다녀오라 하고 들어와서는, 내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H의 행동에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물어보니, 어둡고 조용하면 답답하고 가슴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 조용하면 자다가도 화가 나서 깬단다. 그러면 나가서 누구를 특별히 만나지 않아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오곤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아이 나름 견디고 생존하는 방식이었다. 직면할 힘이 없으니 피하는 것이었다. 시끄러운 거리의 소음과 TV 소리,

누군가의 이야기로 자신의 아픔을 애써 누르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자해를 하기도 해서 두 팔에 길게 그은 자국이 이미

여러 군데였다. 안쓰러운 마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새벽 늦도록 함께 TV를

보기도 하고, H가 보는 유튜브를 함께 보고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나는 자야 낮에 출근도 하고,

다른 아이들도 만날 수 있다 보니, H에게 내가 자고 있더라도 깨워서 몇 시까지 들어올 건지 이야기하고 나가도록 했다.

서로 믿어야 의심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으니 거짓말은 하지 말자며. 그러면 H는 나갔다가도 새벽 6~7시면 들어와

자곤 했다. 그러다 보니 H가 일어나는 시간은 정말 대중이 없었다. 밤 9시에도 일어나고, 오후 4시에도 일어나고...

때론 오전에도 깨어있고... 그래도 내가 활짝에 있을 때면 아이는 혼자서도 잘 놀곤 했다.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잘 외출하지 않았다. 그래도 우울증이 심할 때라 H가 좋아하고 늘 가고 싶어 하는 애견카페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함께 가서 놀고, 저녁식사를 밖에서 하고 같이 부천역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다.

H는 한 달 반을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또다시 가출을 했다.

활짝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랜 시간 목상한 게 아마 루카 복음 15장 돌아온 아들의 아버지 마음일 것 같다.

2016년 3월부터는 피에르 수녀님이 활짝으로 파견되었고, H도 3월 말에 돌아왔다. H는 돌아온 이후 조금씩

달라져갔다.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은 것이 있을까?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때고, H가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문제 등 여전히 힘들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재판은 일 년 동안 지속되었다. 친부는 그 사이 아이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고, 그래서 활짝에 피에르 수녀님 밑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재생시켰다.

새로운 일 년이 시작되면서 그 일은 마침표를 찍기로 하고, 처음에 일 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맺었다. 활짝은 입소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 입소 기간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하도록 한다. H의 두 번째 해 목표는 방통 중학교에 진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고, 20살이 된 마지막 계약 때 목표는 취업과 자립금을 저축하는 일이었다.

1월부터 부천지역자활사업단과 연계하여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꾸준히 일하면서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가지고 왔다. 그렇게 10월에는 5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었고, 친구 1명과 활짝 인근에 월세방을 얻어 자립을 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지금은 활짝에 입소하면서부터 꾸준히 넣었던 주택청약을 발판으로 LH주거를 신청해놓은 상태로, 활짝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계신 다미아노 수녀님이 가끔씩 방문하셔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청소나 다른 필요한 활동들을 함께 하며 자립을 돕고 있다. 활짝에서 H가 산 기간은 가출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대략 3년 정도이다. 거리상담을 마친 후 새벽 2~3시경 부천역 롯데리아에서 남자아이들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인형처럼 이쁘장하고 작고 어려 보이는 외모에 진한 화장, 그리고 무표정하다 못해 싸한 표정을 가진 말 없는 아이. 그 무표정한 얼굴에 마음이 갔던, 그것이 15세 때 H와의 첫 만남에 대한 인상이다. 그 아이의 꿈은 '노숙자'였다. 자신이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 H의 부모는 H가 어찌 살던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H는 그래도 자신이 노숙자가 되면 부모가 마음이 아플 거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건 사랑이 있을 때의 일인데, 그런 아이의 기대가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사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했던 일은 많다면 많고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일이다. 한 번은 심리치료를 데리고 갔는데, 치료는 H의 거부로 2번 만에 그쳤지만, 그때 들었던 치료사의 말이 "아이를 사랑해 다 풍덩 넣었다가 빼야 한다."라고 했다. 그걸 누가 모를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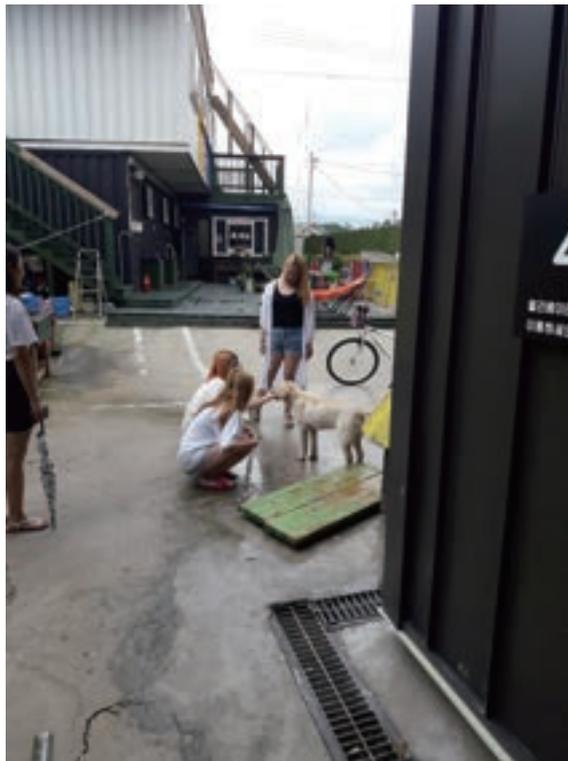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게 문제다. 심지어 우리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즉 엄마의 마음이 되어 본 적도 없다. 내가 활짝에 살면서 느낀 건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깨달음뿐이었다. 그러나 H는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해갔다. 온 집 안에 불을 다 켜고 자는 건 한 달 정도 후에는 거의 없어졌고, 늘 거실에서 잤는데 그런 H를 보다가 깨달은 건 내가 아이에게 아늑하길 바라고 제공했던 방이 친부 성폭력을 겪은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 장소라는 것이다. H는 역시 트라우마 장소인 승용차에 타는 걸 떨며 난다며 매우 싫어한다. 그런데 피에르 수녀님이 행운이와 함께 방을 쓰면서 데리고 자기 시작하니, 점차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 피에르 수녀님 옆에서 잠을 잤다. 밤에 H가 이불을 차고 자면 피에르 수녀님이 덮어주기도 하고 다독여주기도 하면서. 활짝 생활 초기에 H와 함께 TV를 보면 내 다리에 자기 다리를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자주 내 몸에 자신이 몸을 붙이고 있곤 하고, 함께 외출하면 손을 잡고는

지갑을 열 때 손을 놓는 일 말고는 늘 꼭 잡고 다니곤 했다. 타인의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는 꽤나 고역이었는데, 그런 행동이 한참 계속되다가 점차 없어졌다. 내 생각에는 유아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정서적 경험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물론 활짝에서 지낸 청소년들 모두가 이렇게 성공적인(?) 자립을 거두지는 못한다. 여전히 나가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기다린다.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다시 오라고. 거리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활짝에서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어른의 역할'에 대해 늘 고민하게 된다. 아직도 나의 자라지 못한 부분은 아이들과 부딪치고, 또다시 성찰하게 만든다. 사람들로부터 건강하게 자립하는 아이가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말도 수차례다. 그런데 예수님은 밀빠진 나를 위해 아직도 물을 붓고 계신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를 통해 내가 깨달은 어른의 역할이란 '기다림'과 '버티어 줌'이다.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잘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는 대신 재물을 나누어주고 떠나보낸 후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어 낸 것이구나 하는 목상을 하게 된다.

그게 내가 느낀 하느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조급한 열정과 기대에 스스로 지지 않고 가늘고 길게 오래 기다리는 것. 그게 내가 이 사도직을 하면서 하느님께 배운, 아이들을 만나는 요즘 내 방식이다. 어른도 힘겨운 세상에, 아직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튕겨져 나와 살고 있다. 물론 철없어 보이고 개념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위험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개념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안정적이고 융통성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생기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신'으로 성장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물론 어른도 그렇긴 하겠지만 아이들은 성장 에너지가 있어서인지 좀 더 빠른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내 계획이 늘 어그러지는 것이 참 힘들었다. 바람맞는 건 일상이고,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정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하느님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아멘.



오늘, 난민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임향미 안또니오 소비녀

동두천 베타니아 이주민센터는 평화롭게 살 곳을 찾아 기꺼이 목숨을 걸고,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문을 열어 집을 공유하며, 그들의 긴급한 요청에 응답하고,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돕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단기쉼터, 난민인정절차 조력, 생활지원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난민, 이주민들과 동행하고 있다.

낮선 이방인들의 쉼터

단기 쉼터는 여성과 남성 쉼터로 분리되어 있고, 현재는 어른 9명과 신생아 1명이 머물고 있다. 거주 기간은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최대한 6개월, 남자들은 3개월이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신국은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양하고, 남자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대부분이고, 1명이 이주노동자다. 여자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며 임산부들이다. 이들은 쉼터에 머물면서 문화체험, 한글 공부, 취업 준비, 동두천 국제가톨릭 공동체, 보산 공동체, 이태원에 있는 무슬림 사원 등을 방문하며 친교를 나눈다.



쉼터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다양한 삶을 만나게 된다. 국가 간 전쟁, 내전, 소년병징집 거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견해를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고국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다.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해 농장이나 공장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쉼터에 머물면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었을 때 119를 호출하고, 보호자가 없는 자매들의 보호자가 되어 병원에서 함께 지내기도 한다.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경우, 별금을 물지 않기 위해 생후 2개월 만에 아기를 본국으로 보내는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곳 쉼터에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단속에 남편이 잡혀가 구금되어 생계가 막막하고 갈 곳이 없어 24개월이 채 안 된 아기와 머물다가 출국된 사람,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 클럽에서 일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에 분개하여 저항하다 퇴출되어 여권을 빼앗겨 미등록 체류자로 남게 되었던 여성, 병원이나 외출 시 경찰에 단속될까 봐 혼자 다니기를 두려워했던 이주노동자 등 한국생활이 녹록지 않은 힘든 순간을 견디어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면서, 고통의 기억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정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제 없이 자유롭게 지내도록 동행하고 있다.

난민인정절차 조력

현재 머무는 9명 중에는 4명이 난민 신청자다. 이들은 한글도 잘 모르고 일자리 때문에

주거지도 불안정하다.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소송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기 위해 주소지 변경 및 체류 기간 연장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동행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모국에서 대학생 때 강제징집을 거부해서 감옥에 갔다가 제3국을 통해 도망쳐 나와 난민 신청을 한 젊은이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차별과 무시를 당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나, 이주노동자들이 한 명의 사람으로 대접받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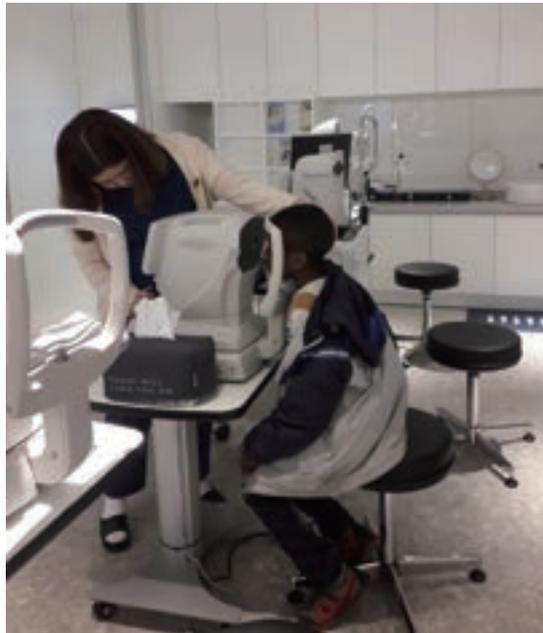
생활지원 : 생계지원, 의료기관 연계 및 지원, 가정방문 및 상담

생계지원 쉼터에 입소하면 면담 후 필요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본인이 직접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난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출입국외국인 청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G-1' 체류 자격을 받는다.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40조)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노동할 권리가 허가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박해를 피해 도망쳐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질 수 있었던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겪는 생존의 어려움이다. 국가에서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기에 젊은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에 이들은 암묵적으로 일용직 노동이나 시간제 일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연계 및 지원 난민과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행한다. 난민캠프나 고국에서 떠나올 때의 심리적 불안정감, 우울증, 불면증 등이 난민들을 괴롭히는 질환들이다. 취업의 어려움과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한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책임감, 그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 육체적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치적인 이슈로 대정부 저항 운동 중 군인이 쓴 총알이 한쪽 눈을 관통하여 의안을 하고 있었다. 의안을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성가복지병원 안과에 모시고 갔다. 안과 선생님의 소개로 의안을 직접 제작하는 곳에 가서 교체했고, 비용은 성가복지병원에서 지원해주었다. 그때 그분의 기뻐하는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성가복지병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의료 계층에 취약한 이들을 환대하는 성가복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의정부 수안과, 우면피아병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찾아가는 환대 가정방문 및 상담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상처를 보듬고, 끊임없이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는 일 또한 우리의 주 업무다. 화해와 평화라는 소중한 언어를 갖고 있고 그것을 원하면서도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소비녀들은 평화의 일꾼으로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과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주고 함께 기도한다. 또한 선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내준 선물인 분유, 기저귀, 생필품, 쌀 등을 필요한 가정에 나눈다. 대부분 단순노동을 하는 그들의 삶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노동 현장에서도 절박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들 모두는 주님의 부서진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우리의 활동 가운데 활기차게 깨어 있으면서 온전히 머무르며,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참여하는 동안 하느님의 '열린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



개별동반 피정 & 일상 영신수련 동반

“나에게 일상 영신수련이란,
‘삶의 현장에서 멈춘 듯
나아가는 계속의 기도’이다.”
- 안성윤 리드비나 자매 -
(2018년 12월 21일부터 일상 영신수련 중)



“영신수련을 통해 삶 속으로 스며든 일상 중에서 하느님과의 만남!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더불어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부르시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들이다.”
- 어은지 미카엘라 자매 (2019년부터 3월부터 일상 영신수련 중) -

의정부관구 본원에서는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 31)는 말씀을 듣는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동반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에 원하시는 날수만큼 수녀원에 머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영신수련을 통해서 매일의 삶 안에서도 골방에 숨어들어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만큼 자신의 고유성을 찾게 되고, 그만큼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좁은길로 이끌리시는 분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문의 010-5906-8099 박 나타나엘 수녀

꽃숨 청년기도 모임

꽃숨 청년기도 모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청년들 스스로 찾아가는 기도모임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복음 안에서 찾고, 기도하며, 실질적인 삶으로 행동함으로써 이 시대의 청년 사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복음과 함께 소비녀의 정신을 통해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복음의 빛으로 기도하고, 실천과 연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 사도'로 부르심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7시 반
- 장소**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본원(부천)
- 문의** 윤준석 바오로 010-6439-1556
황 칸델라 수녀 010-5619-4615



말씀과 함께 하는 소비녀 떼제기도

2020년에는 3월, 6월, 9월에 의정부 관구 본원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떼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의 떼제 노래와 렉시오 디비나가 어우러지는 들녘에 청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대상** 35세 미만의 청년 남녀
- 일시** 3월 21일(토), 6월 20일(토), 9월 19일(토) 오후 2시까지 녹양역 1번 출구
- 장소**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본원(양주)
- 문의** 010-5906-8099 박 나타나엘 수녀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의 것을 경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되,
다른 시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 설립자 성 신부님 어록 중에서 -

하느님의
큰 그림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소비녀들



금경축 · 26회

박정애 에드워드, 이규문 테오도라, 전기도 사비나, 최영자 베드로날라 소비녀
1963년 5월 5일에 입회하셔서 소비녀라는 이름으로 기쁘게 살고 계신 수녀님들입니다.



2019년 5월 11일 금경축, 총원 성당



1974년 10월 3일 종선서원, 총원 마당

은경축 · 53회

권용희 빈첸시오, 박금희 에제키엘, 서미원 로제,
신기순 예수의 베로니카, 이향미 베네딕토, 정명희 대첼베드로 소비녀



1991년 3월 19일에 입회하셔서 2019년 10월 18일 은경축을 맞이하신 수녀님들입니다.

종신서약 · 71회

강성희 어거스틴, 박유진 마리엘리사 소비녀



2009년 3월 19일에 입회한 두 자매가 2019년 2월 18일에
종신서원을 하고 종신반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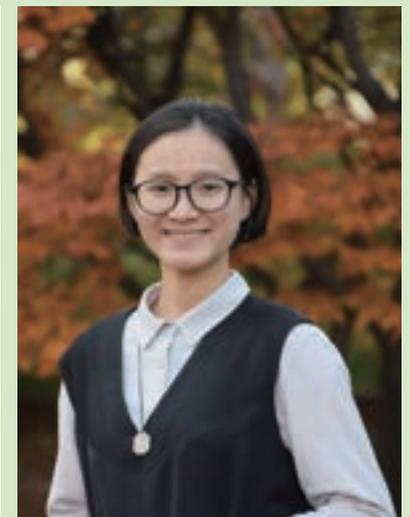
착복 · 79회

레티 황 쩌 다니엘, 응웬 티 흥 머 마리요나, 최선희 유딧, 홍유리 파라 소비녀가
2019년 2월 2일에 새 수도명과 새 수도복을 받았습니다.



청원 · 81회

응웬 티 뚜 쩌 마리아, 닌 티 느 화 마리아 자매가 2019년 11월 1일에
면학기, 지원기를 마치고 청원자가 되었습니다.





2019. 4. 27 JMJ 서울 입회식, 총원 성당



2019. 10. 19 JMJ 인천 첫서약, 총원 성당



2019. 10. 19 JMJ 인천 입회식, 총원 성당



2019. 10. 19. JMJ 인천 서약갱신, 총원 성당

선종하신 소비녀들

한승광 파비올라 소비녀 · 45회
1955. 5. 7 ~ 2018. 12. 18

—
1982년 5월 10일에 입회하셔서
37년의 수도생활을 마치고 귀천하셨습니다.
저희 소비녀들과 함께 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녀님!



최옥분 세라핌 소비녀 · 12회
1936. 3. 24 ~ 2018. 12. 22

—
1956년 5월 9일 입회하셔서
63년간 수도생활 하시고 귀천하셨습니다.
수녀님의 고운 미소 마음 깊이 간직할게요!

선종하신 소비녀들

조복순 헤레나 소비녀 · 21회
1938. 5. 1 ~ 2019. 1. 29

—
1962년 6월 18일에 입회하셔서
52년의 수도생활을 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한순 미카엘라 소비녀 · 17회
1938. 4. 5 ~ 2019. 6. 26

—
1959년 7월 10일에 입회하셔서
61년간 수도생활을 하시고 귀천하셨습니다.



선종하신 소비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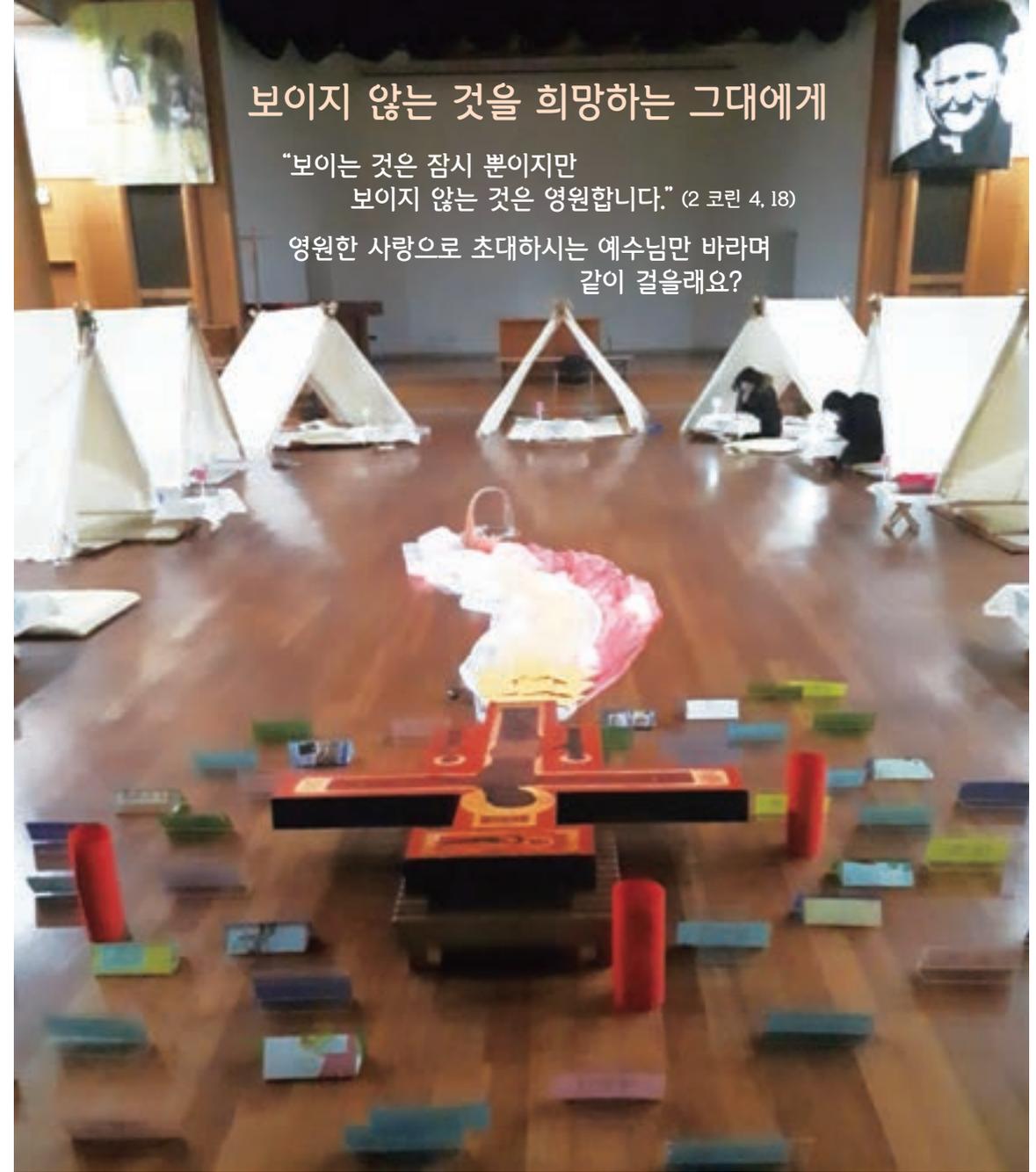
최옥란 요안나 소비녀 · 5회
1929. 4. 16 ~ 2019. 11. 22

—
1949년 5월 15일 입회하셔서
70년의 수도생활을 하시고
이제는 하느님을 직접 뵈옵고 계십니다.



이현수 도밍고 소비녀 · 5회
1927. 7. 26 ~ 2019. 12. 4

—
1950년 4월 27일에 입회하셔서
69년 동안의 수도생활을 하시고
천상 성가정에 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그대에게

“보이는 것은 잠시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 코린 4. 18)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며
같이 걸을래요?

꽃숨 흰나리 모임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일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2시

꽃숨 나자렛 모임

대상 중3 ~ 고3 여학생

일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성가소비녀회 총원(4호선 길음역)

문의 010-2839-4080 고 나연베로니카 수녀